



빼곡히 자란 자작나무 숲 한가운데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깊어진 겨울, 마음의 온기를 채우는 책을 만납니다
 차가운 추위에도 언제나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는 나무처럼
 지식의 숲 도서관도 항상 우리 곁에 함께합니다
 햇빛과 흙, 바람과 물, 자연이 한데 모여 나무의 키가 자라듯
 책을 통한 배움과 경험, 지식과 지혜가 쌓여서 우리도 성장합니다



발행등록 11-137Q014-000026-06
 ISSN 2233-8632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도서관

VOL. 289

국립중앙도서관

오늘의 도서관

VOL. 289 2021. 12



목차

2021. 1·2 VOL.289



6



20



38



48

소통하는 오늘

4

에세이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6

소문난 간서치

임윤희 나무연필 대표

10

오늘의 만남

곽재식 작가·공학박사

지혜의 숲

15

희귀 자료 열람실

백석의 첫 시집 『사슴』

20

사서의 기록

김계숙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사서

24

사서의 추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도서

28

유튜브로 보는 도서관

책 읽어주는 오디오북

내일을 비추는 거울

31

영화 속 책

영화 <행복한 사전>

34

인문학 감성 여행

소설 <태백산맥> 보성 벌교

38

국내 도서관 탐방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42

세계 책방 탐방

런던 페르세포네 서점

46

도서관의 미래

디지털 집현전

오늘의 도서관

48

헤드라인 뉴스

집에서 이용 가능한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확대 제공

사서와 도서관인을 위한 웹페이지 서비스 마련

50

국내 도서관 소식

53

국외 도서관 소식

54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백서

온라인 견학 서비스

<오늘의 도서관> 1·2월호 카드뉴스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블로그 <https://blog.naver.com/todayslibrary>

유튜브 <https://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월간 <오늘의 도서관> 제31권 제1호 통권289호 발행일 2021년 1월 29일 발행등록번호 11-137Q014-000026-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승정, 김윤, 손효림, 송재술, 이정민 편집 김시온 todayslibrary@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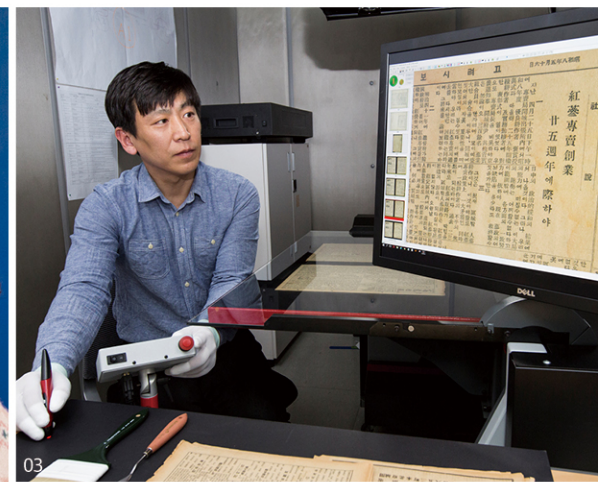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23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표지 애플 디자인·제작 ㈜모두커뮤니케이션즈 02-6377-0516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il.or.kr



01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서고.
02 국립중앙도서관이 제작한 가상현실(VR) 독서 체험 콘텐츠 'VR 도서관: 독서, 그 이상'. 온라인·비대면 시대를 맞아 VR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독서 공간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 문학 작품을 읽거나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도록 구현했다.
03 스캔 스튜디오에서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

2021년 새해 아침, 새 업무일지를 열며

*마른 잎을 다 떨구어낸 산수유나무에 빨간 열매들이 눈물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기어코 이 겨울 찬 바람에도 온기가 스며들 터이고,
그 무렵이 되면 산수유나무 그 자리에 노란 별꽃들이 팝콘처럼 팡팡 피어날 것임을.*

지금 온 세상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지식과의 즐거운 놀이에 열중한 이용자들의 모습이 사라져버렸는데도 여전히 도서관을 지키는 사서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다. 조용한 걸모습과는 단판으로 안쪽은 분주하다. 마치 화산 밑에서 마그마가 부글거리는 것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였던 평창 국가문화보존관 건립 사업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러 해에 걸친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무사히 마치고 설계 예산 28억1000만 원을 우선 확보했다. 소중한 국가문화헌이 열악한 보존환경 속에서 훼손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보존 시설과 기술력을 갖추어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는 물론이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귀중한 문헌자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국가문화보존관의 비전 실현을 위해 위대한 첫발을 떼려고 한다.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의 일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움직임도 점점 더 속도가 붙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오던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뉴딜, 특히 디지털 집현전 사업의 중핵으로서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고품질 디지털화 자료의 양적 성장은 물론이고, 효과적인 본문 검색,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응답하는 큐레이션, 도서관 밖에서의 접근 장벽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 기계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 등 해야 할 일이 산처럼 쌓여 있다. 이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와 반응형 웹 사이트 개선, 유용한 온라인 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 제공, 비대면 쌍방향의 이용자 교육과 실감형 전시 및 원격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등 온택트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전국의 도서관에 보급해야 할 책임도 뒤로 미룰 수 없다.

까마득한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신해왔다. 미래 사회를 위한 도서관의 변화와 혁신은 계속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서들이 있다. 어느덧 우리 속에 훑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이니 블록체인이니 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늘 새로워지고 복잡해지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전문직 사서들의 역량 강화는 필수 조건이다. 도서관 직원의 계속 교육과 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계속 높아지는 사서 교육 수요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두루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75년의 역사를 가진 국립중앙도서관이 더 높이 비약하려면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법과 저작권법을 비롯해서 각종 규정과 지침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손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다.

2021년을 맞아 국립중앙도서관이 해야 할 중요한 과업들을 정리해보니 올 한 해 역시 금방 지나가겠다. 잘 부탁해요, 신축년.

내가 만든 책은 내 삶보다 더 오래 남아

고등학교 시절, 몇몇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마치 <아라비안나이트>의 세에라자드처럼 지난밤 읽었던 책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다. 나는 학교 공부보다 그런데 더 매료되는 학생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세계 외에도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어린 시절 내 주변에는 책 읽는 어른들이 꽤 많았는데 그들은 나에게 책을 읽으라고 권하지 않으셨다. 그저 본인이 책을 즐겨 읽었고, 이따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뿐이다. 나는 그 모습이 좋아 보였고, 그렇게 책의 세계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친구이자 놀이터였던 책과 도서관

내가 네댓 살 때였을 것이다. 아버지는 서울에 조그만 땅을 산 뒤 그 곳에 우리 집을 지으셨다. 나는 그 집을 짓는 동안 땅이 텅 비어 있을 때부터 기둥이 세워지고 집의 꼴이 만들어지고 마당에 꽃나무를 심는 과정까지 지켜보았다. 한창 공사 중이었을 때, 인부 아저씨들이 오가는 길가에서 커다란 모래 무덤에 손을 넣어 두꺼비집을 지으며 놀곤 했다. 아버지는 이 집의 마루에 엄마를 위한 불박이 책장을 만들어주셨다. 그렇다. 우리 엄마는 무척이나 책을 좋아하는 분이셨다. 그 책장은 그런 엄마에 대한 아버지의 배려였고 말이다. 엄마는 집안일을 한 뒤 줄곧 책을 보셨다.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란 연년생 남동생은 매일 머나먼 동네로 원정을 떠나 주머니 가득 딱지와 구슬을 따왔고, 책을 아주 가까이하진 않았다. 하지만 동생과 달리 나는 엄마처럼 매일 책을 보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엄마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엄마는 지금도 도서관 우수 회원을 놓치지 않으시며, 이사를 간다면 꼭 도서관 가까운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도서관은 맛있는 것이 가득한 음식점이자, 신나는 이벤트가 잔뜩 있는 놀이동산 같은 곳이다. 특히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던 대학 시절에 도서관은 나에게 책을 보급해주는 든든한 창고 노릇을 했다. 도서관을 개인 공부하는 독서실로 여기던 몇몇 선배는 뻔질나게 도서관에 드나드는 나를 보고 의아해했다.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 같진 않는데 매번 도서관에 열쫓대는 내가 신기했던 모양이다. 그러면서 나는 자연스레 책뿐만이 아니라 도서관에도 빠져들었다.

재작년에 나는 해외와 국내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도서관 여행하는 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그때부터 '도서관 오타쿠' 기질이 다분했다. 당시에 내가 가진 모든 책을 내 나름대로 분류해 목록화한 뒤 일종의 청구기호를 만들어서 책등에 스티커를 붙여두었다. 듀이십진분류법이나 한국십진분류법 같은

임윤희
도서관 열혈 이용자. 외국에 나갈 때마다 도서관을 기웃거리는 일을 20여 년 해왔다. 지역 도서관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좋은 도서관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을 보태고 있다. 23년간 국내 필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논픽션을 만들어왔으며, 현재는 도서관 나무연필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국내외 도서관을 다니며 <도서관 여행하는 법>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건 전혀 몰랐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청구기호가 있다는 건 알았으니 해본 일이었다. 친구가 책을 빌려달라고 하면 자료 목록에 대출 표시를 해두었고, 책을 구입하면 새로운 청구기호를 더한 뒤 책등에다가 스티커를 붙였다. 달리 말하면 용돈을 아껴 구입한 소중한 책들에 하나하나 식별 가능한, 비록 기호일지언정 내 책만의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책 읽는 사람들이 나를 끌어당긴 책의 세계

이 시절까지 나를 사로잡은 것은 한국 문학을 중심으로 한 예술이었다. 처음에는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처럼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에서 박상룡의 <죽음의 한 연구>처럼 실험적이면서 철학적인 작품에 이르기까지 주로 한국 작가들의 소설을 즐겨 읽었다. 그러다가 문학평론가 김현의 책들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비평의 세계에도 눈뜨게 됐다. 나는 왜 어떤 작품이 나를 놀라게 하거나 감동하게 하거나 해방감을 주거나 깨달음을 주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즉 예술에 대한 해명을 해보고 싶은 욕망이 강했다. 그러면서 내 독서 이력은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외국 작품으로, 픽션에서 논픽션으로 넓어졌다.

대학원에서 연극학을 공부하면서 소포클레스와 셰익스피어와 체호프의 희곡을 만나게 된 것 역시 20대를 돌이켜볼 때 꼭 밝혀야 할 나의 독서 이력 중 하나다. 나는 이들의 작품으로 ‘고전’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극 장르는 그 특성상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을 아울러 이해해야만 더욱 또렷하게 다가갈 수 있다. 희곡은 그렇게 내 독서의 범주를 넓혀가기 좋은 장르였다. 또한 희곡을 읽는다는 것은 작가가 창조한 수많은 인물을 만나는 일이기도 했다. 이 인물들은 이후 내 마음속에서 마치 살아 있는 인형처럼 움직이곤 했다. 삶의 우여곡절이 깃든 어떤 순간에 나는 고전 속에 있던 인물들을 소환해냈다. 예전엔 미처 몰랐지만, 한참이 지나고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곤 했던 것이다.

가령 <리어 왕>을 처음 읽었을 땐 자기한테 아부하는 딸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자기를 진정 사랑하는 딸 코딜리어는 밀쳐내는 리어왕이 바보 같아 보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라는 인간 역시 그렇게 때론 남의 말에 팔랑귀가 되고, 그러다가 땅을 치며 후회한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 나는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바보 같아 보이는 리어왕 같은 인간이었다.

어릴 적 <오이디푸스 왕> 같은 작품에서는 잘 구성된 희곡에서 느낄 수 있는 극적 쾌감을 많이 즐겼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작품을 떠올릴 땐 다른 지점이 많이 떠올랐다. 자신의 문제를 잘 풀아가려는 의지를 가진 인물에게 닥쳐오는 예기치 못한 운명의 굴레 같은 일들은 가상의 극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이따금 벌어지는 일이었다. 또한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결함을 알게 된 뒤 자기 눈을 찔러 장님이 될 만큼 윤리적이었지만, 이후의 삶을 그려낸 <클로누스의 오이디푸스>에서 그는 스스로에 대한 저주를 조금 부인하면서 자신의 정당방위를 주장한다. 윤리적 선택을 했던 인간이지만, 그 선택

“
희곡을 읽는다는 것은
작가가 창조한 수많은
인물을 만나는 일이기도
했다. 이 인물들은 이후
내 마음속에서 마치 살아
있는 인형처럼 움직이곤
했다. 삶의 우여곡절이
깃든 어떤 순간에 나는
고전 속에 있던 인물들을
소환해냈다. 예전엔
미처 몰랐지만, 한참이
지나고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곤 했던
것이다.”



01



02

03

01 임윤희 대표가 즐겨 읽는 책들. 특히 희곡과 고전, 도서관 관련 책을 좋아한다.

02, 03 도서관이 좋아 외국에 나갈 때마다 도서관 탐방을 해온 임윤희 대표가 다녀온 세계 도서관들. 워싱턴 주 시애틀 공공도서관(좌)과 다마 미술대학 도서관(우).

택을 뒤로한 채 살아가면서는 또 이렇게 그 과거를 비틀어 바라보기도 한다는 것. 그런 게 인간이란 걸 조금은 알게 되기도 했다. 이처럼 아주 오래전 외국 작가의 작품이 만들어낸 인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줄곧 참조가 되어주었다. 이것이 내가 고전을 지금도 다시 펴들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책 읽는 삶, 책 만드는 삶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에 뛰어들어 출판사에서 일하게 되기 전까지, 나는 편집자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사실 나는 출판사에서 일하던 친구의 추천으로 우연히 취업을 해서 책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출판에 대한 꿈을 키우고 도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니다. 우연히 나에게 다가왔는데, 이 일이 나랑 맞겠다 싶어서 덩석 이 우연을 붙잡은 것이었다. 7년간 편집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들을 위한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나는 그런 이들을 볼 때마다 겸연쩍다. 나로서는 이 일을 하기 전에 가져보지 않은 궁금함이나 간절함을 품고 있는 이들을 매번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연히 시작한 일이지만, 책 만드는 일은 재미있었다. 보통 편집자에게는 자기가 만든 책이 곧 자신의 포트폴리오다. 그것은 내가 읽은 책의 이력과는 다른, 내 노동의 이력이다. 후자의 이력으로 보자면 나는 국내 필자를 중심으로 한 인문사회 논픽션 분야의 책을 만들어왔다. 어릴 적엔 문학을 그리 좋아했는데 왜 그런 책을 만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이따금 받곤 했다. 물론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출간하던 책의 성향에 따라 그리 된 것이긴 하지만, 내심 좋아하는 것을 일로 하는 데 대한 조심스러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물론 일로 만나는 논픽션도 좋아하지만, 문학을 비롯한 예술의 영역만큼은 지극히 사적이고 자유로운 독서의 세계로 남겨둔 셈이다. 사실 한 권의 책을 만드는 일은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 세계란 한 권의 책 이전에 만들어진 수많은 책을 경

유해야만 완성된다. 즉 좋은 책을 만들려면 자의반 타의반 다른 책을 읽어야만 한다. 그러니 나는 직업적으로 간서치가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일로서의 고됨이 있지만, 그럼에도 재미가 있는 일이다. 나에게 흥미로우면서도 세상에 보탬이 될 만한 문제를 써줄 수 있는 필자를 찾고 그 문제가 현재 어떠하며 앞으로 어떠해야 할지를 그려나가는 일은 분명 새로운 모험을 동반하면서 책을 매개로 내가 성장해가는 것이었다. 또한 더 깊고 넓은 책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이기도 하고 말이다.

올 초에 한 기자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대표님이 만든 책의 출간 리스트를 보면 온화함과 전복성이 공존해서 흥미로워요.”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책들과 함께 도서관이나 도시양봉 같은 사안을 다루는 책도 펴내서, 달리 말하면 관심사가 여럿이라 출간 리스트 역시 산만한데, 그걸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싶었다. 웃으면서 답했다. “이렇게 말하면 비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한테 공표하기는 민망하지만, 사실 저의 기획 방향은 사랑과 평화인데…” 결국 내가 읽고 고민하고 만들고 싶은 책의 방향은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닐까 싶다.

물론 또 다른 방향도 있다. 언젠가 꽤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은 책을 쓴 필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제가 그 책을 쓰면서 머리말에 책의 무병장수를 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책은 비교적 오래 살아남았지요.” 이 말에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저는 무병장수도 좋지만, 불로장생하는 책도 만들고 싶어요!”

책과 함께해온 내 이력을 이곳에 풀어놓았는데, 어쩌면 내가 만든 책은 내 삶보다 더 길게 살아남을지도 모른다. 출판인의 입장에서 그런 책들을 펴내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 책이 계속 살아남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꿈이다. 꿈이 너무 큰데, 꿈이니까 그렇다.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나는 책과 함께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간다.

매일을 살아가듯 읽고 쓰다 광재식 작가·공학박사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백 권의 책보다 하나의 성실한 마음이 더 크다.”
미국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한 인물로 꼽히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성실함은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그저 쓰는 게 좋아 묵묵히 하다
보니 그 글을 찾는 독자가 생겼고, 어느새 20여 권의 책을 낸 작가가 됐다.
공학박사이기도 한 광재식 작가는 학문적으로는 명확히 분류되는
분야를 넘나들며 세상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다.
그에게 작가로서의 삶과 창작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성실한 쓰기가 작가로 거듭나게 해

공학박사와 작가를 겸하고 있다. 공학박사로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다.

서울에 있는 한 화학 회사의 연구개발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 연구
개발 일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일이 사무직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화학에 관한 기술을 연구하는 일이 좀 더 많은 정도이다.

작가님의 이력을 살펴보니 학창시절부터 글 쓰는 것을 즐겼
고, 대학 재학 시절 카이스트 문학상을 두 번이나 받을 정도로
열심히 쓴 것 같다.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하며 작가로도 왕성하
게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교내 문학상은 경쟁률이 그리 높지 않고 대단할 것도 없는 상이라
남다른 필력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처음에 누군가가 내
수상 이력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이 지금까지 돌고 도는 것 같다. 아
마 어떤 작품으로 상을 받았는지 관심 있는 사람도 드물 거다. 소설
쓰는 게 좋았고 취미여서 꾸준히 하다 보니 내 글에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점차 생겼다.

2006년에 <토끼의 아리아>가 드라마로 만들어지면서 판권을 팔
았는데 그게 내 작품으로 처음 돈을 번 거였다. 잡지나 공동단편집에
조금씩 글을 싣다가 2013년에는 내 작품만을 모은 첫 책을 냈다. 원

고료를 받고 글을 쓰게 되는 일이 많아지니까 본격적으로 작가로 활
동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다. 내 글이 그만큼 인
정받고 내 작품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니 더 용
기를 내 글을 쓰게 됐고 그게 지금까지 작가라는 타이틀을 걸고 활동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다.

출판업계에서 ‘광재식 속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해마다 다수
의 작품을 집필하고 있다. 책 출간뿐 아니라 여러 매체에 칼럼
을 기고하고 웹소설 집필, 오디오북 채널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
는데, 연구자 일을 병행하며 끊임없이 글을 써내는 게 놀랍다.

글 쓰는 일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작가가 생각보다 많
다. 아마 작가로 활동하는 열에 아홉은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을 하
면서 글을 쓰고 있을 거다. 그들 중에는 나보다 더 열심히 쓰는 사람
이 많다. 특히 웹소설 작가가 그렇다. 나 역시 특별할 것은 없고, 다
른 작가들보다 성실한 편에 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다.

‘광재식 속도’라는 말이 생겨난 것은 SF소설 작가 듀나 님이 처음 언
급하면서 다른 작가들 사이에서 그런 별명이 농담처럼 돈 것 같다.
여느 작가들처럼 나도 매일 틈틈이, 그리고 꾸준히 글을 쓰려고 노
력하는 것뿐이다.



광재식

공학박사로 화학회사 연구원이며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6년 단편 <토끼의 아리아>가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SF를 중심으로 다수의 소설집 등 여러 장르의 책을 출간했다. <행성 대관람차>, <가장 무서운 이야기 사건>, <당신과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지상 최대의 내기>, <사기꾼의 심장은 천천히 뚝뚝> 등 다수의 소설을 비롯해 작업서 <항상 앞부분만 쓰다가 그만두는 당신을 위한 어떻게든 글쓰기>, <삶에 지칠 때 작가가 버티는 법>, 한국 전통 괴물을 다룬 인문서 <한국 괴물 백과>와 과학교양서 <로봇공 화국에서 살아남는 법>을 냈다. KBS라디오 <광재식의 과학 수다>를 비롯해 대중매체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곽 작가는 '과학식 속도'라고 불릴 정도로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을 해마다 다수 집필하고 있다.

과학 교양서와 더불어 과학을 소재로 한 소설, 로맨스, 역사물, SF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을 쓰고 있다. 여러 장르를 다루는 이유가 있나?

글을 써달라는 원고 의뢰를 받다 보면 자연스레 여러 장르의 글을 쓰게 되더라.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작가는 더 그렇게 되는 것 같다. 문학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최인호 작가나 이문열 작가도 추리 장르가 짙은 소설이나 역사 소설, 수필 등의 작품을 적지 않은 분량으로 쓰기도 했으니 꾸준히 일하고 있는 작가라면 특별히 한 장르에 집중해야겠다는 소신이 있지 않은 이상 다양한 성격의 글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런 작가들 중 하나다.

다문화 가정 문제를 소재로 한 작품도 꽤 있다.

여러 장르의 소설 중에서도 특히 SF를 좋아하는 편인데, SF는 미래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내가 처음 SF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던 때가 2000년쯤인데, 그 당시 짚어지는 다문화 사회가 한국의 미래를 드러내는 중요한 관점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설에도 적극적으로 표현해왔다.

다양한 콘텐츠로 소통하는 게 즐거워

전설 속의 괴물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책, 로봇공화국을 설정해 인공지능과 로봇의 미래 세상을 살펴보는 책, 최근에는 미래 상점의 물건들로 유망 과학 기술을 알아보는 책을 집필하는 등 과학 기술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흥미롭게 미래 세상을 예측해보는 대중적인 과학서를 발간하고 있다. 어려운 과학 기술을 친숙하게 전달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과학 기술과 관련한 팟캐스트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서 매

주 과학 기술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대중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방송에서 전한 내용을 정리했던 것과 평소 수집해온 자료들이 모이다 보니 책으로도 몇 번 출간하게 됐다.

어려운 과학 기술을 전달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을 마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려운 주제의 내용일지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을 포착하여 그것부터 소개해보려고 노력한다. 그런 내용 덕택에 관심을 갖고, 그 주제에 빠져들다 보면 점차 어려운 내용을 자연스레 이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쉬운 기초 지식의 소개 정도라고 생각한다.

글쓰기를 이제 막 시작하거나 글을 잘 쓰고 싶어 하는 사람, 혹은 본연의 직업과 병행하며 글을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니고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조언을 하기가 조심스럽다. 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말을 한다면 스스로 무슨 글을 쓰고 싶은지 끊임없이 떠올려보고 정말로 내가 쓰고 싶은 글은 어떤 글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어디에 뭘 쓰고 싶다고 아예 써두어도 좋다.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글을 하루에 한 번씩 잠깐이라도 꼭 써보는 게 중요하다. 하루에 한 시간, 일주일에 다섯 시간 정도라도 처음엔 충분하다. 스스로 마감 기한을 정해두고 그 일정에 맞춰서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직접 써보지 않으면 글쓰기를 시작할 수도 없고, 다른 일과 병행하며 글을 쓰는 건 더 어렵다.

평소에 메모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일상에서 겪는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삶이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으니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낀 것, 경



곽 작가는 140자 소설, 괴물 백과사전, 역사 속 과학 미스터리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며 콘텐츠를 만들고 소통한다.

“원고료를 받고 글을 쓰게 되는 일이 많아지니까 본격적으로 작가로 활동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글이 그만큼 인정받고 내 작품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니 더 용기를 내 글을 쓰게 됐다.”

험을 그때그때 메모해두면 다양한 글감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정보가 모여 있는 곳이 도서관이다. 연구자, 작가로서 도서관을 자주 이용할 것 같은데, 도서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어릴 때는 종종 주말에 아버지와 함께 도서관에 가곤 했다. 그렇게 도서관에서 아버지와 책을 읽고 시간을 보내다가 도서관 휴게실에서 컵라면을 같이 사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여러 번 방문했다. 도서관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면서도 동시에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한다. 휴식과 공부는 분리되기 마련인데 도서관에선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서관이 생기고,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이 개관해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역 거점, 문화 명소가 되면 좋겠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열린 서가도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소장자료 보관의 의무가 있어 책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느 정도 제한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용자가 직접 서가에서 책을 고르고 펼쳐볼 수 있는 곳이 좀 더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

베스트셀러를 출간하거나 작가로서 상을 받는 등 큰 이력을 남기는 데 아주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는 오랫동안 꾸준히 글을 쓰고 책을 남기는 작가가 되고 싶다. 또 지금껏 잘해온 것처럼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좋은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력이 좋은 작가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많기에 정해진 기한의 약속을 잘 지켜내는 것도 곧 실력이자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와 삶을 품다 백석의 첫 시집 『사슴』

백석(본명은 백기행白夔行)의 첫 시집 『사슴』은 1936년에 발간됐다. 일본 아오야마(青山)학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34년 귀국한 백석은 <조선일보>에서 펴내는 월간지 『여성(女性)』 편집부 기자로 일하면서 1935년 8월에 시 「정주성(定州城)」으로 시단에 나온 신인 시인이었다. 백석은 1932년에 이미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로 당선한 소설가였지만, 등단 5개월 만인 1936년 1월에 내놓은 시집 『사슴』으로 경성시단의 주목을 받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백석의 첫 시집 『사슴』
백석이 발행자로 당시 100부
한정판으로 출간됐다.



윤동주가 품고 다닌 시집

경성문단은 해외 사조를 따르는 모더니즘, 프롤레타리아 계급문학으로 채워졌었는데, 백석의 시는 어느 시류에도 따르지 않는 독특하면서도 탁월한 시였다. 자신이 타고 자란 북관(北關) 평북 산골의 겨울 정취, 명절 풍경, 향리의 음식들은 '모던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지만 심표도 없이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내력으로 이어진 긴 시의 문장 형식은 모더니즘을 부르짖던 그 누구의 시보다 '모던'했고 민족의식을 강조한 어떠한 시보다 우리 민족과 가까웠고, 정서적 과잉 없이 줄줄이 읊듯이 옛 시간을 그려낸 깊은 감성은 소박하면서도 세련됐다.

백석이라는 젊은 시인이 뛰어난 시집을 냈다는 소문에 이 시집을 읽고 싶은 이들이 많았지만 선광인쇄주식회사에서 백석 자신을 발행자로 100부 한정판으로 낸 탓에 시집 『사슴』은 쉽게 구할 수가 없었다. 당시 어린이 잡지에 동시를 발표하고 연화전문 문과 진학을 준비하던 스무 살 문학청년 윤동주는 시집 『사슴』을 직접 베껴서 표지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출판 유통 환경이 좋지 못했던 당시에 다른 작가의 작품을 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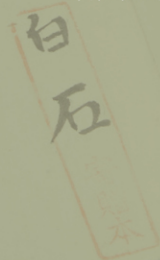
작가의 삶과 역사를 바로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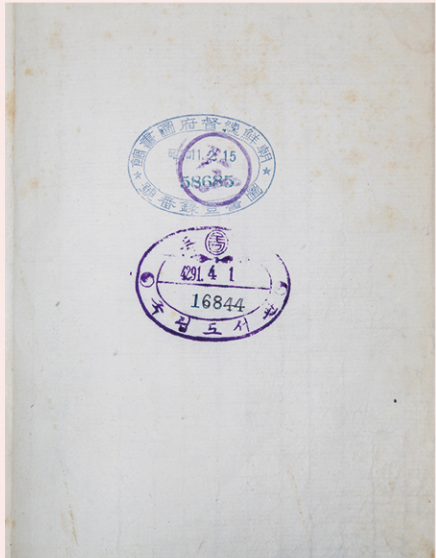
지난 백 년간 우리는 식민지와 분단,
체제 경쟁과 대치라는 민족의 역사 아래 놓여 있었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굴러가고 있다.

조국을 식민 통치하는 나라의 수도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스물다섯 살의 청년,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과 언어를 가진 시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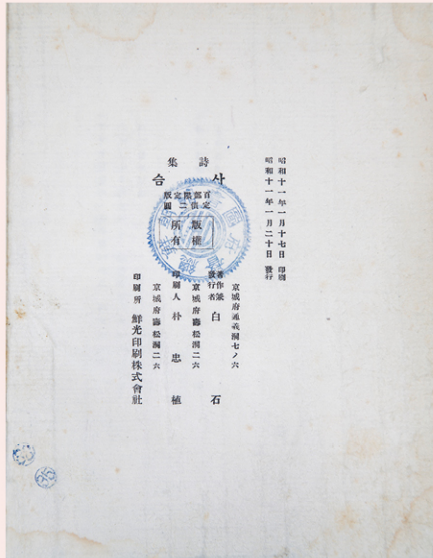
모닥불을 통해 응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희귀 자료 열람실」 중





01



02

01 『사슴』에 찍힌 두 개의 장서인(藏書印). 1936년 총독부 도서관 장서인과 1958년 국립중앙도서관 등록 장서인이 모두 찍혀 있다.

02 백석은 시인 등단 5개월 만인 1936년 1월에 시집 『사슴』을 냈다. 『사슴』에 인쇄일(소화11년(1936년) 1월 17일)과 발행일(1월 20일)이 찍혀 있다.

하는 일이 더러 있었지만, 윤동주는 백석의 시집 전체를 필사하고 본문에 붉은 펜으로 자신의 감상을 써넣어 가며 표지가 낡아질 때까지 품고 다녔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1912년생 백석과 1917년생 윤동주는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 둘은 화려한 수사 없는 순정한 언어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했으며 시류나 유파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서정을 보여줬고, 또 북관 출신의 식민지 청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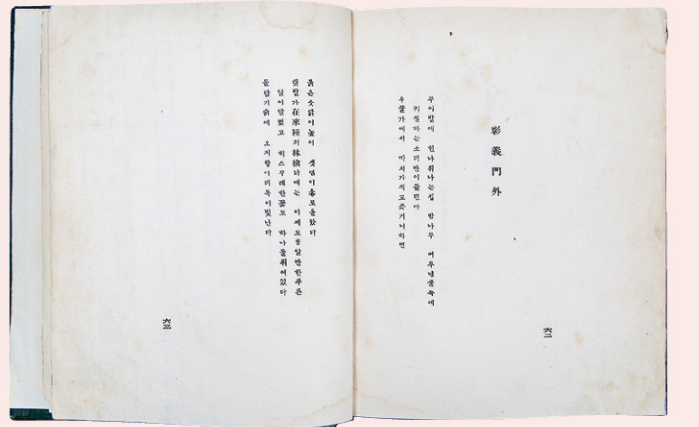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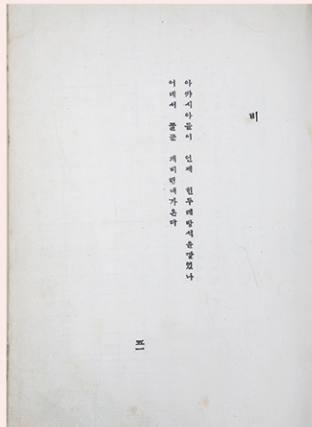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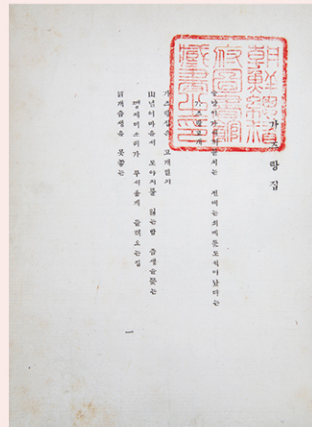
두 개의 장서인이 찍힌 배경의 의문

정가 이 원(二圓)으로 당시에 출간된 다른 시집들보다 비쌌다는, 1936년에 100부 한정판으로 간행한 『사슴』을 소장한 공공기관은 두 곳이다. 한 권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두 권 소장되어 있다. 이 글을 준비하며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알게 된 몇 가지 사항은 백석 시집 『사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사슴』에는 두 개의 장서인(藏書印)이 있다. 장서인은 출판물이 도서관에 들어올 때 소장처를 표시하는 도장인데, 『사슴』은 1936년 총독부 도서관에 납본됐음을 알 수 있는 장서인과 1958년 국립중앙도서관 등록 장서인이 모두 찍혀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출판법」은 1909년 2월부터 시행됐는데, 이 법에 의해 조선에서 출판되는 출판물들은 사전검열을 위한 허가 신청과 출간 후 제본 납부가 의무화됐다. 「출판법」 2조는 “문서·도화를 출판코자 하는 때는 저작자 또는 그 상속자와 발행자가 도장을 찍은 고본(稿本)을 지방장관(한성부에서는 경시총감)을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이고, 5조는 “제2조의 허가를 얻어서 문서와 도화를 출판할 때에는 즉시 제본 2부를 내부에 송부해야 한다”이다. 1936년에 발행된 시집 『사슴』도 이 과정을 거쳐 납본됐을 것이고, 그중 한 권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1936년 총독부 도서관에 납본된 『사슴』이 한동안 제적, 즉 등록된 자료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다가 1958년 국립도서관 도서관으로 다시 등록됐다는 것이다. 제적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적 도서 대부분이 한국인(조선인)이 쓴 책, 조선어학 책, 기독교 관련 책인 것으로 보아 일본 총독부의 검열 과정에서 제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적 시점과 이유가 분명하지 않듯 1958년에 재등록된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제적된 자료들은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사슴』은 폐기되지 않고 모처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이 놀랍고도 다행스럽다. 그래서 『사슴』에는 두 개의 장서인이 있고, 오늘날까지 국립



『사슴』에 실린 「가즈랑집」 「비」 「창의문외」

중앙도서관에 남아 있는 것인데 이 역시 어떤 이유로 누가 폐기하지 않고 보관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제적 시기와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백석이 월북 작가이기에 제적됐다고 단언할 수도 없고, 근거가 없으니 백석 시를 흠모한 누군가가 『사슴』을 지켰다는 다소 낭만적인 상상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궁색한 면이 없지 않다. 재등록은 1958년이고 월북 작가 해금 조치는 1988년이므로 해금과의 연관성도 찾을 수 없다. 어쨌거나 『사슴』은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역사의 파고를 넘어온 듯하다.

백석은 왜 북을 향했을까

시집 『사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없듯이 시인 백석의 삶에도 곡절이 많았을 텐데 우리는 그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 30대 중반 이후 백석은 북한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백석의 시간은 추측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시집 『사슴』을 낸 후 백석은 함흥의 영생고등보통학교의 영어 교사로 부임한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작품을 쏟아내며 활발히 시를 창작하다가 1940년에 돌연 만주로 떠난다. '남행시초南行詩抄', '함주시초咸州詩抄', '서행시초西行詩抄'에서 보듯 백석은 여행을 자주 하며 여행 시편을 썼었지만, 만주행은 단순한 여행이기보다는 경성문단과 조선을 떠나고 싶은 도피로 보인다. 백석은 세간 일도 하고 러시아어도 배우고 시를 써서 경성에 보내기도 하면서 일제강점기 말기를 만주에서 보냈다. 당시 만주는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러시아인들로 북적였는데 만주국을 세운 일본은 이들의 화합과 협력을 부르짖으면서도 제국주의의 야욕을 감추지 않았고 백석은 그곳에서도 짙은 식민의 그늘과 피지배 민족의 절망을 느껴야 했다.

그러다 광복이 되자 백석은 경성이 아닌 평양으로 귀국했다. 아직도 많은 연구자와 독자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다. 1930년대 조선 문단 최고의 시인 백석은 왜 북한을 택한 것인가? 그가 공산주의자였던가? 아마도 백석은 식민지 시기 조선, 경성문단이 보여준 무기력함에 실망하여 경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향으로 귀국한 것이 아닌가 싶다. 백석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여 북한을 택했다기보다는 경성문단에 대한 염증과 실망으로 고향인 평북 정주로 갔다고 볼 수 있다. 백석은 일본 유학 시절부터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영생고보 교사 시절에도 러시아인들과 대화하려고 일부러 바닷가 유원지를 찾았으며 만주 시절에도 러시아어를 공부한 바 있지만 공산주의에 경도되거나 사상을 학습한 행적은 찾을 수 없다. 함흥의 양복점이나 바닷가, 만주로 수학여행 가는 기차, 만주 지역에서 백석이 만날 수 있었던 러시아인들이란

거의 러시아 혁명을 피해 온 백계(白係) 러시아인이었다. 때문에 백석이 러시아 혁명의 주체인 이른바 적계(赤係) 러시아인들을 만나서 공산주의에 경도된 것은 아닐 것이다.

굴곡진 삶을 시로 말하다

백석은 1918년부터 1928년까지 정주 오산학교를 다녔는데 오산학교는 남강 이승훈이 민족운동과 인재 양성을 위해 세운 학교로 조만식, 홍명희가 교장, 김억, 염상섭이 교사였고 학생으로는 김소월, 한경직, 함석헌과 같은 민족 인재를 배출한 학교였다. 백석이 학생일 때 조만식이 교장이었는데 그 인연으로 광복 후 백석은 평남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조만식의 러시아어 통역을 맡았다. 백석은 조만식의 러시아어 통역을 하면서 북한 정계의 중심에 있었고, 이후 북한문단에서 러시아어 번역가로 활동했다.

정권 초기 북한은 사회주의 모범 국가로 소련을 따라 배우기에 골몰했고 문단에서는 소련 문학 번역이 활발했다. 소련의 문화, 문학을 소개하는 전문잡지 『조소문화(朝蘇)』가 있을 정도였다. 백석은 특유의 유려한 문체로 수십 권의 러시아 소설과 수백 편의 시, 동화를 번역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백석의 번역은 현재의 러시아문학 전공자가 보아도 수준 높은 문학성을 갖추었다고 한다. 소련의 문학 작품 번역에 몰두하던 백석은 1957년 동시집 『집게네 네 형제』를 발표한다. 이 동시집은 북한문학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념성이 없고 의인화된 동물들의 천진함이 담겨 있어 남한의 많은 아동 출판사에서 최근에도 출간이 이어지는 인기 시집이다. 이 시집 이후 백석은 자신의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동시집이나 번역이 아닌 자신의 시를 쓰게 된 것은 그가 북한문단의 변화를 감지하고 소망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북한문단의 변화는 1953년 스탈린의 죽음부터 시작된다. 1956년에 소련에서 열린 ‘20차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스탈린식 개인 독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경직된 공산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난다. 소련 문학에서는 이를 ‘해빙기’라 부르며 문학의 문학성과 아름다움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훈풍은 소련공산당 대회에 참석한 북한 문인들을 통해 북한에도 전해진다. 1956년 말,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작가대회’에서 몇몇 문인들이 북한문학의 도식주의를 비판하며 문학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이에 힘입어 백석, 서만일 등 문학성을 강조하는 작가들이 부상하여 중앙 문예지 편집진을 맡게 된다. 이때부터 백석은

자신의 시 창작을 재개하고 아동문학과 시에서 예술성을 강조한 언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사회는 소련의 변화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했다. 소련에서 벗어나 북한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며 이전보다 더 일인독재를 강화하고 그에 반하는 정적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다. 문학에서는 도식주의가 회귀하고 예술성을 강조하던 작가들은 ‘현지 파견’이라는 명목으로 변방으로 내려진다.

백석 또한 1958년 말 삼수 관평으로 내려갔고, 이후 1962년 『아동문학』에 발표한 「나루터」를 마지막으로 작품 활동을 접어야 했다. 이후 30여 년 동안 백석은 그곳에서 양과 돼지를 돌보고 가끔 작가 지망생들을 가르치며 생활하다 1996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석이 북한에서 산 시간이 더 길었던 만큼 우리가 모르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백석의 사연도 많을 것이다. 북한문단을 택한 이유, 끝내 월남하지 않은 이유, 북한의 시인으로 살면서 써냈던 체제 찬양의 시편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어쩌면 그의 시집 『사슴』이 조선총독부 도서관에 납본됐다가 제적되고 다시 등재되는 사연이 있듯, 백석도 그가 남긴 작품만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많은 일을 겪었을 것이다. 백석의 굴곡진 삶이 백석 개인 선택의 결과만은 아닐 것이고 백석 개인의 사건만은 아니다. 지난 백 년간 우리는 식민지와 분단, 체제 경쟁과 대치라는 민족의 역사 아래 놓여 있었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굴러가고 있다.

시집 『사슴』에는 정작 ‘사슴’을 제목으로 한 시는 없지만, 백석의 초기 시 33편이 실려 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흰 바람벽이 있어」, 「국수」 등은 나중에 쓰여진 것이라 이 시집에는 없지만 「가즈랑집」, 「여우난굴族」, 「여승(女僧)」, 「모닥불」과 같이 뛰어난 시편들이 들어 있다. 조국을 식민 통치하는 나라의 수도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스물다섯 살의 청년,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과 언어를 가진 시인이 모닥불을 통해 응시하는 것은 무엇일까.

「모닥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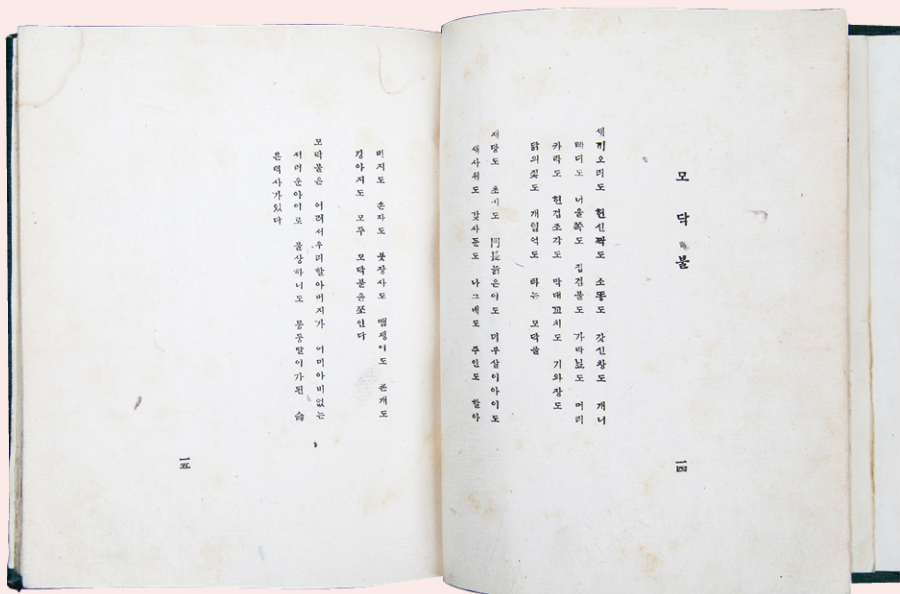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쭈도 짚검불도 가락늪도 머리카락도 헌겔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와장도 닭의집도 개털억도 타는 모닥불

재당도 초시도 門長늬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땀쟁이도 큰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상하니도 몽둥발이가 된 늙은 력사가 있다.

*몽둥발이: 떨어져 불은 것이 다 떨어져지고 몸통이만 남은 상태의 물건.

모닥불 안에는 모든 것이 타고 있다. 아니 어쩌면 타지 못하는 것들도 그저 모닥불에 던져 넣은 것, 던져진 것일 수도 있다. 그 불이 모든 것을 태우고 집어삼키는 불이라면 그럴 수 있다. 마치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나 역사처럼 불이 타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저 바라볼 뿐이다. 어미아비 없는 ‘몽둥발이’의 서럽고 불쌍한 마음으로. 시집 『사슴』과 시인 백석의 삶에는 역사의 질곡과 민족의 슬픈 사연이 담겨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뿐이다. 잔인하고 슬프고도 따뜻한 역사, 슬픈 사연을.



『사슴』에 실린 「모닥불」.

이상숙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Harvard University Korea Institute Fellow를 거쳐 가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95년 <세계일보> 신춘문에 평론 부문에 당선했고 2005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제6회 젊은 평론가상을 수상했다. 평론집 『시인의 동경과 모국어』, 『통일시대 남북의 시』, 『가난한 그대의 빛나는 마음: 북한 문학 속의 백석』, 편저로 『백석문학 전집2』, 『박재삼 시선』, 『정지용 시선』, 『북한의 시학연구』 등이 있다.



마을과 주민이 함께하는 도서관 만들기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은
2020년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도서관 성공 운영 사례를 전국의 사서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산(山)과 책(冊)의 만남, '산·책 도서관' 개관

우리 도서관은 주변이 산으로 막혀 있어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환경으로 이용자들의 민원이 많았고, 독서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고심했다. 서대문구 지역 명소인 안산둘레길과 도서관을 연결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자연을 품은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의 변화를 모색하던 중, 서대문구와 협업하여 지역 대표 북카페 형식의 숲속도서관과 안산부터 도서관 진입 데크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대문구는 소나무 숲 산책도서관 조성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여 시설·환경 조성(데크로드 420m)을 지원했고, 우리 서대문도서관은 '사유·소통·나눔'의 독서로드 설계와 '산책도서관 가는 길' 독서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마을 특색사업 '월든의 서재'와 '숲속책방'에 비치된 도서를 자연 속에서 함께 읽기, 산책 인문학 강연, 추천 도서 북큐레이션 및 공감 문장 전시, 독서 릴레이 등의 힐링 독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했다.

도서관 옆 산책길 및 산·책(山冊)도서관 개관은 서울교육청 소속 도서관 최초로 지자체와의 협치로 완성한 자연 친화적 도서관이라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산책 마을독서프로젝트 추진은 계속됐고,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독서 생활 지원과 함께 지역 자원(안산)과 도서관의 협업으로 마을 특성과 주민 독서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했다. 또한, 자연 친화적인 도서관 영역을 확장하고 도서관의 접근성을 높여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01 1986년에 개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02 2020년 4월에 개관한 산·책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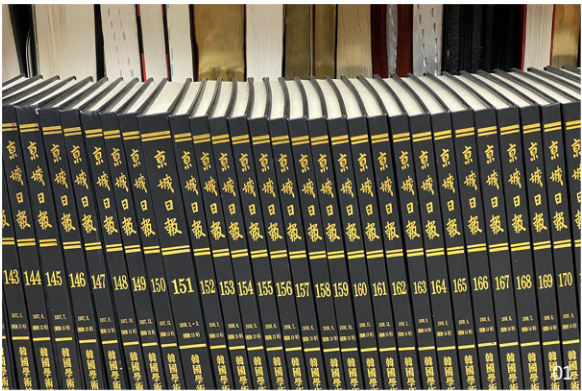
03 도서관 주변 산책길을 조성한 독서로드. 사유의 길, 소통의 길, 나눔의 길로 이뤄져 있다.



지역 특수성 살린 특화도서관으로 독서 문화를 이끈다

서대문구는 서대문형무소, 독립운동관 등 독립운동의 성지로 둘러싸여 있다. 지리적 강점을 드러내고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독서 전략을 모색하고자 우리 도서관 특화자료(일제강점기)의 수집·제공과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2020년은 광복 75주년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도서관과 민·관·학 협력 프로젝트 ‘도서관에서 역사를 묻다’를 추진했다.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속적 홍보와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운영했다.

교육지원청·구청·대학과는 역사 인문학 프로그램을, 서대문형무소·독립운동관과는 근·현대사 철학 강의 및 역사 현장 탐방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현재도 후속 모임이 지속되고 있다. 동네책방·작은도서관과 연계한 일제강점기 시인 강연은 지역 문학작가를 발굴했다. 초등학교 방문 독서 지도



01, 02서대문도서관은 독립운동의 성지인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일제강점기 특화자료를 수집·제공하고 관련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로 사서가 직접 개발하여 진행한 ‘모두의 태극기’ 독서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됐다. 이 밖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사 이해 자료 전시와 목록 제공, 정보와 사람을 잇는 콘텐츠 큐레이션으로 지역 주민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역사 정보를 제공했으며, 산·책(山冊)도서관에서 운영한 독립운동가에게 엮서 쓰기와 전시 프로그램은 나라 사랑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이처럼 도서관 유관·협력기관과 연계한 특화 주제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마을 독서공동체 추진 등 도서관의 지역 공공성 향상을 통해 지역 독서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됐다.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비, 온라인 독서 인프라 확충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국가답게 언택트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로 도서관은 다양한 형태의 독서 방법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했다. 디지털 콘텐츠가 강세인 상황에서 시대에 걸맞은 변화된 정보 서비스와 인프라 개발이 필요했다.

우리 도서관은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위해 독서 전문가인 사서와 외부 기관(대학)과의 협력으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추진했다. 이후 개발된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제작하고, 전 직원에게 교육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최초로 유튜브 채널 <책, 세상과 통하다>를 개설했고, 온라인 독서 환경에서 전 세대에게 익숙한 소통의 창을 만들었다. 언택트 시대 맞춤형 서비스 ‘오디오·영

03 산·책(山冊)도서관에서 운영한 '독립운동가에게 엮서 쓰기' 프로그램.



상 디지털정보서비스'인 <소리Q(소리+QR코드)>와 <소리뷰(소리+리뷰)>는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대면 서비스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었다.

2019년 6월에 개설한 유튜브를 통한 오디오 독서정보 서비스는 취약계층(약시자, 다문화, 어르신 등)에게 유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온라인 독서 콘텐츠를 통하여 랜선 독서토론(초·중·청소년·성인), 온라인 독서교육, 한 책 및 추천도서 소개, 온라인 전시 등 다양한 독서 이벤트를 운영했으며,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대문도서관 <책, 세상과 통하다> 유튜브 채널은 꾸준히 조회 및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빅데이터로 보는 도서관, 유튜브 활용 홍보 이벤트 등 다양한 온라인 독서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외부 자원과의 협력으로 개설된 유튜브 채널은 한정된 도서관 자원을 지역 주민을 넘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이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제공함으로써 독서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다.

마을로 찾아가는 취약계층 지원으로 독서 공동체 형성

서대문구는 고령자가 증가하는 반면, 복지 시설은 축소되어 취약계층 대상 독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독서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독서 및 학습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품(마을 품: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품: 도서관 이용 생활화 지원) 독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했다. 정책 관계 기관과 협력 기관의 요구사항을 파

악하고, 상황에 맞게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했으며, 장애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과 단축 수업 등의 여건을 고려해 ‘집콕 독서’를 지원하고자 맞춤형 책 꾸러미 배부 및 온라인 체험형 독서 교육을 운영했다.

다년간 취약계층 대상의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은 지금과 같은 언택트 시대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데 밑거름이 됐고, 학습 동아리와 마을 강사 인력 활용으로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 확산과 독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누군가의 작은 울림은 깊은 떨림으로 다가와 모두가 함께하는 진한 감동을 준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사서와 이용자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도서관 공동체라고 생각한다.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은 코로나 시대에 산·책(山冊)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기후와 환경을 생각하는 더욱 스마트한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할 것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개관 1986년 12월 18일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412 면적 4322㎡ 자료실 종합자료실·어린이실·디지털자료실 자료 현황 도서 19만3942권,비도서 1만675점(2020년 12월 말 기준) 휴관일 매월 첫째·셋째 주 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 운영 시간 자율학습실 오전 7시~오후 11시(주말 오전 7시~오후 10시) 종합자료실 오전 9시~오후 8시 디지털·어린이자료실 오전 9시~오후 6시(종합 디지털·어린이자료실 주말 오전 9시~오후 5시)

새로운 내일을 내다보는 마음의 양식

국내 문학

“내일의 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허상을
홍내 낼 필요도, 나의 존재를 숨길 필요도
없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 내일의 다음 날도, 그다음 날
의 또 다음 날도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가슴 뛰게 했다.” (434쪽)



스노볼

박소영 지음 | 창비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813.7-20-1243=2

영하 41℃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가는 바깥세상 사람들과 ‘스노볼’이라는 보다 풍요롭고 통제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소설에는 두 세상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스노볼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스노볼에서의 삶 자체가 타인에 의해 드라마로 편집되어 바깥세상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액터’, 액터의 삶을 극적으로 편집하여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수록 명성을 얻는 ‘디렉터’, 그리고 이러한 동 안의 세상을 구축한 ‘이본 미디어 그룹 일가’다. 이 소설은 스노볼의 디렉터를 꿈꾸던 바깥세상 소녀 ‘전초밤’이 스노볼에 들어가 마주하는 진실의 이야기를 담는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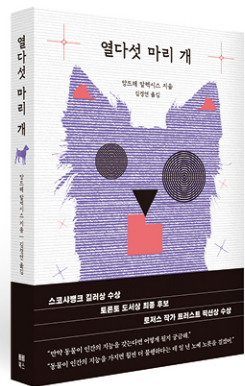
알로하, 나의 엄마들 | 이금이 | 2층 문학실 813.7-20-613=2

더 설리 클럽 | 박서련 | 2층 문학실 813.7-20-1091=2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 이꽃님 | 2층 문학실 813.7-20-1435=2

국외 문학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개의 자질 가운데
하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에티커스가 마음속에 품고 있듯이,
개 중의 개는 실존해야 했다. 존재해야 했다.”
(149쪽)



열다섯 마리 개

앙드레 알렉시스 지음 | 김경연 옮김 | 뽀빠박스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843.6-20-210=2

‘개가 인간의 지능을 가지게 된다면,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 아폴론 신과 헤르메스 신은 15마리 개에게 인간의 지능을 부여하며 ‘만약 동물이 인간의 지능을 갖게 된다면, 삶의 마지막 한 마리라도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내기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의 변화가 밀려온 개들은 선택을 시작하고,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개와 예전의 존재 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개로 나뉜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폭력과 힘의 계급화,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각기 다른 반응들, 실존주의와 헤겔의 변증법,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놀이, 종교, 죽음의 불가피성 등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눈의 무게 | 크리스티앙 게 폴리캥 | 2층 문학실 863-20-1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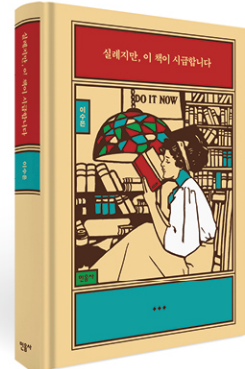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 | 올라 토카르추크 |

2층 문학실 892.95-20-2=2

개가 되기 싫은 개 | 팔리 모앗 | 2층 문학실 843.5-20-24=2

인문예술

“너무도 간절히 사표를 쓰고 싶었던 한 남자는
쇠뿔구리가 됨으로써 비로소 꿈을 이룬다.
당신의 소원이 진정 퇴사라면,
어느 날 아침 벌레로 눈 뜨기 전에 사표를
던져라. 지금 당장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달려가라.” (29쪽)



실례지만, 이 책이 시급합니다

이수은 지음 | 민음사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029.1-20-34=2

이 책은 고전을 소개하는 독서 에세이다. 저자는 독자가 자신만의 상황에 맞는 고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별 독서 리스트를 제안한다. ‘자존감이 무너진 날에는’ 『설국』, 『햄릿』, 『차라투스 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사표 쓰기 전에 읽는 책’으로는 『달과 6 펜스』, 『변신』, 『레미제라블』을 소개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전 읽기를 시도하지만, 쉽게 책장을 넘기지 못한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다소 무겁게 느껴졌던 고전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슬그머니 놓아버렸던 고전들이 있다면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온 이 고전들을 다시 만나보는 건 어떨까.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속편자를 위한) 고전 노트 | 이수은 | 4층 도서자료실 160-18-13=2

책은 망치다 | 황민규 | 4층 도서자료실 029-18-16=2

비밀의 도서관 | 올리버 티얼 | 4층 도서자료실 029-17-12=2

인문예술

“은유는 이성적 사고를 기반으로 삼지만,
알레고리는 상상력도 바탕으로 삼는다.
은유는 작품의 세부 요소를 표현으로 하지만,
알레고리는 작품 전체를 지배하는
더 큰 개념이다.” (177쪽)



걸작과 졸작 사이

김이산 지음 | 반니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609-20-24=2

이 책은 한 예술가의 걸작과 졸작을 집중적으로 비교하여 걸작이라 부르는 작품과 조명받지 못했던 숨겨진 작품을 함께 분석한다. 작가는 생명력, 자유, 상상력 등 걸작의 조건을 총 26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또한 유명 화가의 생애를 조명하며 걸작의 조건에 부합되지 못했던 예술가의 졸작들을 해석하여 이해를 돕는다. 졸작을 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걸작이 예술가의 수많은 시행착오와 치열한 노력의 산물임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수많은 졸작을 거쳐 빛을 발하는 걸작을 남기게 된 예술가들, 그들의 작품 세계를 한 권의 책으로 만나보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나쁜 그림 | 유경희 | 4층 도서자료실 650.4-17-18=2

가까이서 보는 미술관 | 이예인 | 4층 도서자료실 653.2-19-1=2

살아남은 그림들 | 조상인 | 4층 도서자료실 653.11-20-107=2

“본질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쓴들 바이러스를 막지 못할 것이며,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에까지 마스크를 씌우지는 못할 테니까요, 음식은 이제 산업의 관점이 아니라 생명의 관점에서 다시 다루어져야 합니다.”^(272쪽)



음식에도 마스크를 씌워야 하나요

: 팬데믹 시대의 식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임선영 지음 | 마음의숲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381.75-20-20=2

바이러스 감염이 코앞까지 다가온 요즘 건강을 지키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가 최상의 방어라면 건강한 음식은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강력한 공격이다. 이 책은 우리 몸을 살리는 식사법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영양 구성, 그리고 건강한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루 한 끼 이상은 채식 위주의 자연식을 하고, 항바이러스 음식인 도라지와 마늘, 양파를 추천한다. 그리고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 3와 오메가 6, 비타민, 루테인 등 영양소와 보충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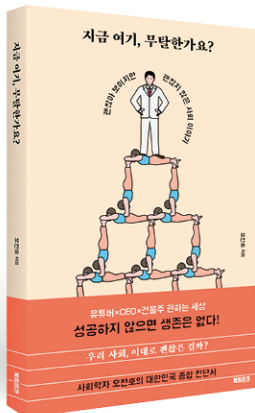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양식의 양식 | 송원섭 외 | 4층 도서자료실 381.75-20-21=2

조선의 미식가들 | 주영하 | 4층 도서자료실 381.75-19-6=2

미식의 역사 | 질리언 라일리 | 4층 도서자료실 381.75-17-1=2

“논란이 많다는 건 기존의 생각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다.”^(89쪽)



지금 여기, 무탈한가요?

오찬호 지음 | 북트리거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334-20-11=2

이 책의 제목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기던 개념, 사상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그저 무탈하다고 생각하고 지내온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들여다보고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면, 만연해 있는 불평등과 무의식적인 차별에 대해 짚어본다. 저자는 크게 세 개의 테마별로 구분하여 환경, 교육, 동물, 난민, 장애인, 노동자, 부동산, 정치 등 분야별로 퍼져 있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 그에 대한 의견과 질문 등을 던지며 독자를 고민에 빠지게 한다.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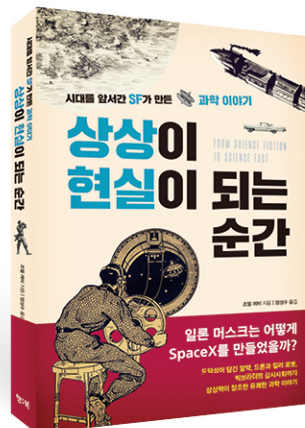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미안함에 대하여 | 홍세화 | 4층 도서자료실 330.4-20-32=2

규제의 역설 | 최성락 | 4층 도서자료실 350.1-20-19=2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 | 강양구 | 4층 도서자료실 304-19-6=2

“로봇-뇌를 가진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이 경주될 것이다. 목적지만 정해주면 인간 운전자의 느린 반사신경은 전혀 개입할 필요 없이 직접 목적지까지 운전해서 가는 자동차 말이다.”^(19쪽)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 시대를 앞서간 SF가 만든 과학 이야기

조엘 레비 지음 | 엄성수 옮김 | 행복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400-20-23=2

이 책은 '시대를 앞서간 현실'인 SF를 만들어낸 작가와 미래학자, 발명가들에 대해 알아보고, SF적 개념이 어떻게 현실에서 기술로 실현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미지와 함께 보여준다. 스마트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1966년 프레더릭 폴이 소개한 『우유 부단한 사람들의 시대』에서 예견된 일이며, 휴고 건스백의 1925년 작 『렐프 124C 41+ : 2660년의 로맨스』에서 예견된 '텔레포트'는 2006년에나 대중에게 보급된 '영상 통화'와 다르지 않다. 아 이작 아시모프는 1964년에 소비자 로봇 기술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 책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고 더욱 흥미롭게 다가올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미래에서 온 외계인 보고서 | 박상준 | 4층 도서자료실 400-20-16=2

SF 유나버스를 여행하는 과학 이야기 | 전홍식 | 4층 도서자료실 400-20-22=2

SF 거장과 걸작의 연대기 | 김보영, 박상준, 심완선 | 2층 문학실 809.9-20-2=2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한다. 이 선택의 결과가 밤하늘에 반짝이는 저 수많은 별이 되고, 우주가 되고, 오늘의 내가 된 것이다. 선택, 그것은 모든 존재의 존재 이유다.”^(212쪽)



우주를 만지다

: 삶이 물리학을 만나는 순간들

권재술 지음 | 특별한서재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420.04-20-4=2

우리가 사는 지구도 우주고, 우리도 우주의 일부다. 우주는 너무 커서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다. 그러한 우주를 만진다는 건 어떠한 기본일까. 책장을 넘기다 보면, 미시세계(원자)와 거시세계(우주)로 이루어진 물질세계를 설명하는 물리학을 만나게 된다. 물리학이라고 하면 읽기도 어려운 수많은 공식, 법칙, 원리로 가득하고 지금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이미 물리학의 한 축을 이루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저자는 아득히 멀게만 보이는 우주가 독자들에게 더 친근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오기를, 우주를 만지고 놀면서 우리의 인생이 더 풍요롭고 즐거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나의 대답은 오직 과학입니다 | 닐 디그래스 타이슨 | 4층 도서자료실 443.02-20-1=2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 조엘 레비 | 4층 도서자료실 400-20-23=2

제3의 생각 | 스티븐 와인버그 | 4층 도서자료실 420.1-2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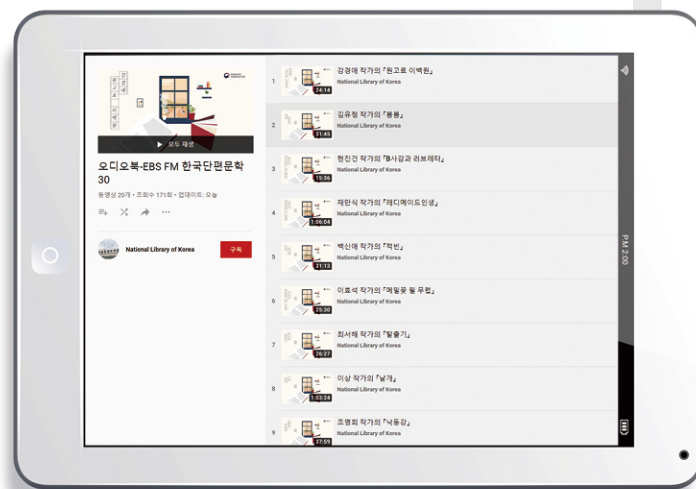


책 읽어주는 오디오북 도서관 유튜브에서 즐기자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독서의 즐거움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호부터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 공공도서관의 유튜브 콘텐츠를 선정해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 그 첫 번째로 독서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오디오북 콘텐츠를 마련했다.

국립중앙도서관 <EBS FM 한국단편문학 30> 오디오북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성우가 낭독한 한국단편문학 오디오북을 국립중앙도서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다. 오디오북 작품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설문조사를 통해 이효석 작가의 <매밀꽃 필 무렵>, 김유정 작가의 <봄봄>, 현진건 작가의 <B사감과 러브레터>, 안국선 작가의 <금수회의록> 등 30편이 선정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EBS와 함께 'EBS FM 한국단편문학 30'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EBS FM(104.5MHz) '오디오천국'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한국단편문학 오디오북에는 사서가 소개하는 책의 서평이 담겨 있어 작품 전반을 이해하고, 성우가 들려주는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감상할 수 있다. <한국단편문학 30> 오디오북은 책을 자주 접하기 어려운 바쁜 일상에서 우리의 가치 있는 문학을 들으며 마음의 풍요로움을 더할 수 있는 콘텐츠다.



국립중앙도서관 유튜브



<한국단편문학 30> 오디오북 작품

▲강경애 <원고료 이백원>
▲김유정 <봄봄>
▲현진건 <B사감과 러브레터>
▲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백신애 <적빈>
▲이효석 <매밀꽃 필 무렵>
▲최서해 <탈출기>
▲이상 <날개>
▲조명희 <낙동강>
▲현진건 <운수 좋은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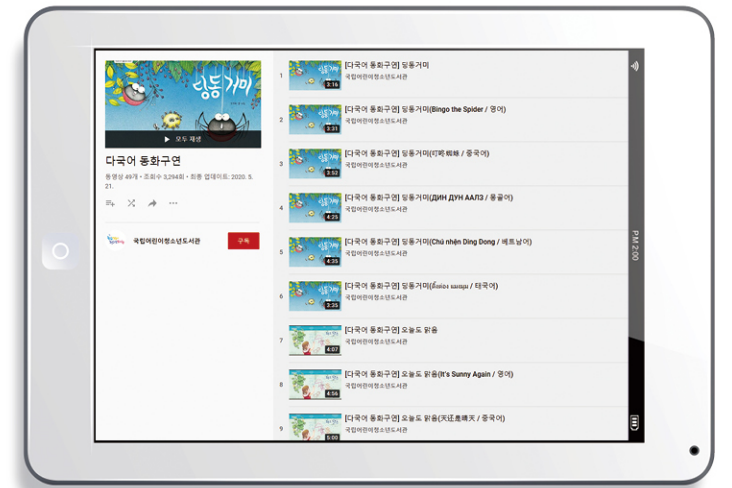
▲김유정 <동백꽃>
▲나도향 <방어리 삼룡이>
▲계용목 <백치 아다다>
▲나혜석 <어머니와 딸>
▲현진건 <술 권하는 사회>
▲채만식 <치숙>
▲이태준 <복덕방>
▲김말봉 <편지>
▲안국선 <금수회의록>
▲이해조 <자유종>

▲강경애 <지하촌>
▲나혜석 <경희>
▲손창섭 <비 오는 날>
▲신채호 <꿈하늘>
▲이상 <지주회사>
▲최서해 <홍염>
▲계용목 <병풍에 그린 님>
▲나도향 <물레방아>
▲심훈 <황공의 최후>
▲이무영 <흙의 노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다국어 동화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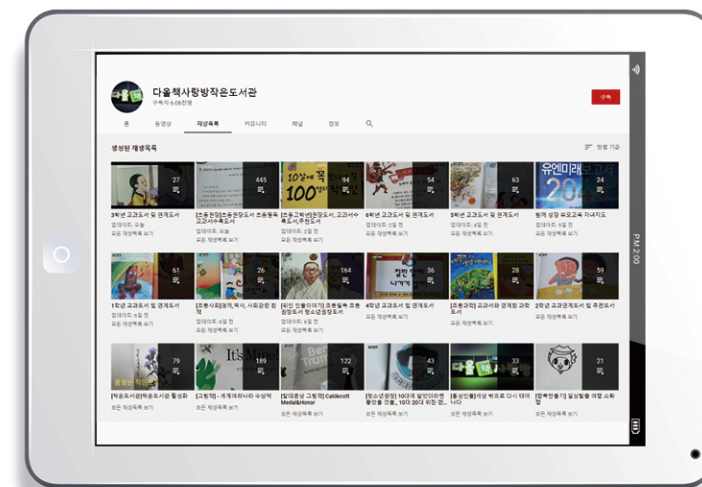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여러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2010년부터 세계의 우수 그림책을 선정해 6~9개국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로 번역하여 동화구연 동영상 제작 및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 전래동화를 비롯한 외국 전래동화, 창작 동화 등 다양한 작품을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다국어 자막으로 이야기를 전한다. '다국어 동화구연' 콘텐츠는 코로나19로 집콕 독서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지난해 이용률이 약 10배 상승하기도 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다국어 동화구연'을 검색하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국어 동화구연' 누리집(<http://storytelling.nlcy.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유튜브



'다국어 동화구연' 누리집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 유튜브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

충남 홍성군에 있는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은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가 2019년에 개관한 곳이다. 세계 그림책 수상작 원서와 번역본을 전시하는 북큐레이션을 운영하며, 세계 그림책 작가 모음전 등 그림책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를 진행한다. 이원수, 백석, 권정생, 윤구병, 이오덕, 방정환 등 우리나라 동화작가를 비롯해 존 버닝햄, 에릭 칼, 앤서니 브라운, 에스라 잭 키츠, 패트리샤 폴라코 등의 해외 유명 작가 작품까지 약 7000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다.

다올책사랑방 작은도서관은 코로나19로 휴관이 계속되면서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독서 서비스를 마련, 매일 책을 읽어주는 콘텐츠를 업로드해 800편 이상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채널 구독자 수가 6000여명, 영상 최다 조회 수가 100만여 회가 넘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주요 콘텐츠로는 학년별 읽어야 할 필독 및 권장 도서와 교과수록 도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는 우주

집과 학교와 세상으로부터

독립된 우주정거장 같은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서관.

하고 싶은 걸 하고, 쓰고 싶은 걸 쓰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동안

꿈과 희망이 죽순처럼 자라나는 풍경은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신선하고 뿌듯한 경험이다.

「국내 도서관 탐방」 중

언어의 바다를 건너는 배를 엮다 영화 <행복한 사전>

1995년, <대도해>라는 일본어사전 편찬을 위해 출판사 내부에 꾸려진 사전편집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행복한 사전>의 원작은 미우라 시온의 소설 <배를 엮다>다. 서점 대상 1위, 소설 부문 판매 1위, 60만 부 판매 돌파의 기록을 세우며 일본에서 2012년 최고의 소설이 된 이 작품의 원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4만여 개의 표제어를 목표로 하는 '대도해'라는 극 중 사전 이름을 떠올리면 도움이 된다. 바다를 건너는 언어의 배를 엮는 작업이라고 사전 편찬을 은유한 것이다.



영화 <행복한 사전>과
원작 소설 <배를 엮다> 국내판.

단어의 뜻을 아는 것은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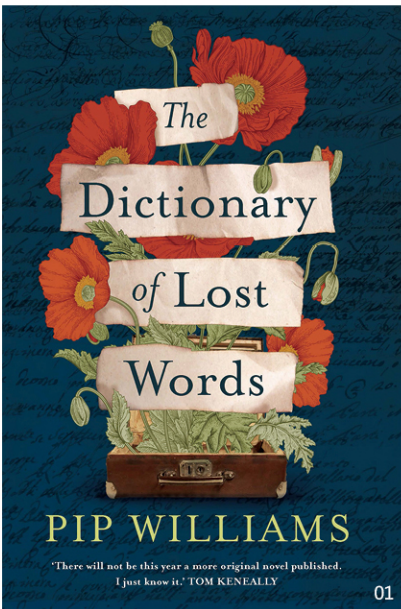
“자네는 ‘오른쪽’을 설명할 수 있나?”

영화 <행복한 사전>의 무대는 사전편집부. 결원을 보충해야 하는데 아무나 데려올 수가 없다. 사전편집부의 말단 편집자조차 ‘오른쪽’을 설명하지 못하자, 다들 적임자를 찾아 나선다. ‘오른쪽’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설명법은 ‘왼쪽의 반대쪽’이지만, 상대적인 개념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충분한 설명이 아니다. 사전의 굉장한 점은 바로 거기 있다. 포털사이트 어학사전에서 ‘오른쪽’을 검색하면 “북쪽을 향했을 때의 동쪽과 같은 쪽”이라는 결과가 뜬다. 사전편집부 사람들은 ‘성실하다’는 뜻의 ‘마지메’라는 이름을 가진 숫기 없는 영업부 직원 마지메 미쓰야(마쓰다 류헤이)가 ‘오른

쪽’을 서쪽을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를 사전편집부로 옮기게 한다.

단어의 뜻을 알고 싶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싶다는 뜻이다. 그건 타인과 연결되고 싶다는 욕망. 영화 <행복한 사전>에도 나오는 이 표현은 사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된다. <대도해>는 현재를 살아가는 언어를 담고자 하는데,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던 1995년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그 이후로는 신조어를 종이사전이 감당하는 일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제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단어를 넣기만 하면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단어를 대충 아는 대로 쓰고 그 뜻을 확인하지 않는다.

나는 2000년에 편집기자로 일을 시작했는데, 선배들이 가르쳐준 글 다루는 기술 중 하나는 ‘사전을 자주 찾아보라’였다. 안다고 생각한 단어의 뜻을 모르는 일이 비밀비재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다. 모르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늘 사전을 가까이하라고 조언한 선배도 있었다. 사전을 수시로 뒤적여 버릇하면 내가 모르는지도 몰랐던 단어를 알게 되고, 실린 예문을 통해 단어의 활용법을 익히는 것으로 늘 사용하는 제한적인 단어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조언이었다. 사전은 그 자체로 세상을 담은 책이다. 개념을 정리하고 뜻을 해설한다. 용법에 충실한 문장을 실생활에서, 무엇보다 예술 작품에서 찾아내 실는다.



01

“사전은 말의 바다를 건너는 배야. 사람은 사전이라는 배를 타고 어두운 바다 위에 떠오르는 작은 빛을 모으지. 더 어울리는 말로 누군가에게 정확히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만약 사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드넓고 막막한 바다를 앞에 두고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소설 <배를 엮다>에 나오는 이런 표현은 사전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해준다. 어떤 단어를 새로 사전에 추가할지, 그 단어를 어떻게 정의할지를 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흥미롭다. 배를 엮는 데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것이다. ‘모든 단어’를 담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단어의 정의

<행복한 사전>에서 마지막에는 하숙집 주인의 손녀 카구야(미야자키 아오이)와 마주치고 첫눈에 반한다. 보통 일을 손에 잡지 못하고 허둥대는 마지막에게 상사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직접 채우라는 말을 한다.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까. 당신에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따라 저마다 답이 다를 것이다. 누구에게는 희생이고, 누구에게는 열정이며, 누구에게는 신뢰다. 사전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실을 때는 누구에게나 통용될 중간값이면서 흔들기 없는 절댓값을, 언어를 깎고 깎아 만들어야 하지만, 그 역시 인간이 하는 일이다.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다. 기시베는 문득 먼 옛날 생물이 탄생하기 전에 지구를 덮었다고 하는 바다를 상상했다. 혼돈스럽고 그저 꿈틀거리기만 할 뿐이었던 농후한 액체를, 사람 속에도 같은 바다가 있다. 거기에 말이라는 낙뢰가 떨어져 비로소 모든 것은 생겨난다. 사랑도 마음도 말에 의해 만들어져 어두운 바다에서 떠오른다.”

그러니 어쩌면 누군가와 서로 사랑한다는 말, 마음이 맞다는 말

은 해당 용어에 대해 같은 사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될지도 모른다. <행복한 사전>은 그게 어떤 뜻인지를 섬세하게 그려간다. 영업부에 있기에는 수완이 부족해 보였던 마지막가 사전을 엮는 작업에 몰입하는 과정, 그리고 욕심을 부리다가 욕심을 버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그래서일 것이다.

<잃어버린 단어들의 사전>이라는 책 역시 사전 편찬 과정을 다룬다. 윌리엄스라는 호주 여성 작가의 소설인데, 실제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편찬 역사를 다룬다. 이 책에서 사전 편찬 과정을 다루는 방식은 <행복한 사전>과는 약간 다르다. 사전을 엮는 과정은 비슷하다. 1886년 2월부터 1928년까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 소설은 사전이 갖는 ‘말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에 방점을 찍는다. 사전 편찬부는 남성 편집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우는 <행복한 사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잃어버린 단어들의 사전>은 여성들의 언어와 사전을 만들고자 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주인공 에즈미의 아버지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 편집자다.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만들어지는 편집실에서 시간을 보낸다. 사전 편집이 이루어지는 책상 밑에서 에즈미는 책상 아래로 떨어진 ‘여자 노예’라는 단어가 적힌 종이를 줍는다. 에즈미는 성장하면서 탈락한 단어들이 여성들이 사용하는 말, 혹은 여성들이 듣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주류 사회가 사전에 실을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에 어떤 편견이 작용하지는 않을까를 묻는 이 책은 자연스럽게 영국에서 일어난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 이어진다. ‘자매들’이라는 단어에 ‘동지들’이라는 뜻이 포함될 수 있음을 미처 상상할 수 없던 똑똑한 남자들의 세계를, <옥스퍼드 영어 사전> 초판이 성차별적인 텍스트였던 이유를 다루는 것이다.

바래지 않는 사전의 가치

시대가 바뀌면 사전이 품어야 하는 단어도 바뀌고, 업데이트 방식도 바뀐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온라인판은 해마다 새로 생긴 단어들의 쓰임새와 빈도를 따져 새로 등록하는 단어들과 ‘올해의 단어’를 발표한다. 2019년에는 블록체인 관련 단어에서 ‘Cryptocurrency(암호화폐)’와 ‘Satoshi(사토시)’의 2개 단어를 추가했다. 같은 해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였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이 단어의 사용 빈도가 12개월 동안 11% 정도가 늘어났다고 한다. 2020년에는 ‘올해의 단어’를 하나로 추리지 못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그 이유는 당연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다. 영국의 콜린스 사전은 ‘2020 올해의 단어 TOP 10’을 선정했는데 사정은 비슷했다. ‘봉쇄(Lockdown)’, ‘휴직 또는 일시해고(Furlough)’, ‘자가격리(Self-isolate)’,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 등 코로나19 관련 단어들이 선정된 가운데 한국어인 ‘먹방(Mukbang)’도 포함됐다. 이제는 점점 많은 사람이 국경 없이 문화를 접하고 콘텐츠를 공유하니, 사전 역시 그 흐름을 따르는 셈이다.

<행복한 사전>은 변하는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는 가치를 다룬다. 시류를 잘 따르는 언어를 구사하는 일은 언제나 중요하지만(특히 마케팅과 광고에서는 시류에 맞는 유행어나 문장이 돈이 된다), 중요한 글일수록, 오래 두고 볼 글일수록 시류를 타지 않는 단어들을 뜻에 맞게 정갈하게 쓰는 노력을 단련해야 한다. 그러니 결국은 단어들을 잘 가리는 훈련이 필요한 셈이다. 잘 가려 쓰려면 잘 들여다봐야 한다. 언어에 신중한 이들에게 사전이란 가장 좋은 친구가 된다.



02



03



04

01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편찬 역사를 바탕으로, 사전의 권위에서 제외된 여성들의 언어와 사전을 만드는 데 기여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잃어버린 단어들의 사전>.
02, 03, 04 2014년 개봉한 영화 <행복한 사전>.

이다혜
주간 영화전문지 <씨네21> 편집팀장.
현재 네이버 오디오클럽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영화 프로파일>과 팟캐스트 <이다혜의 21세기 씨네픽스>를 진행 중이다. 저서로는 <출근길의 주문>,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토의 밤 산책자>, <책 읽기 좋은 날> 등이 있다.



차라리 사랑은 하지 말 것을, 정하섭과 소화

별교에 도착하자마자 '소화의 집'부터 찾았다. 현재 복원한 '소화의 집'은 본래 무당집이 있던 곳이다.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작가의 상상력에서 태어난 허구이지만, 배경 대부분은 별교에 실제 존재했던 지명과 건물들이다. 1988년 태풍이 닥칠 때까지도 무당집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언제 떠올랐는지 모를 그믐달이 동녘 하늘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밤마다 스스로의 몸을 조금씩 조금씩 깎아내고 있는 그믐달빛은 스산하게 흐렸다. 달빛은 어둠을 제대로 사르지 못했고, 어둠은 달빛을 마음대로 물리치지 못하고 있었다.

〈태백산맥〉 1권 '일출 없는 새벽' 중에서

<태백산맥>의 첫 문장이자, 빨치산의 비밀당원 정하섭이 무당 월녀네로 숨어들던 날 밤의 묘사다. 월녀는 '현 부자'가 제각(祭閣)과 별장을 신축하면서 마련해준, 집 바깥 터의 건물에서 딸 '소화'와 함께 기거하던 무당이다. 정하섭은 술도가의 아들이고 중학교 무렵부터 소화를 흠모했다. 하지만 소화가 어머니에게 대물림 곳을 받은 후 크게 상심했다. 정하섭이 빨치산이 되어서 다시 만난 그들은 사랑에 빠지고, 소화는 결국 하섭의 아이를 잉태한다. 읍내의 상황 등 여러 정보를 정하섭에게 전달하며 좌익의 사상에 동조하던 소화는 결국 체포되어 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간다. 옥중에서 아이를 낳은 소화는 이후 소설에서 더는 등장하지 않는다. 정하섭 역시 포로가 되어 거제도에 수용된다. 이후 정하섭은 복송되었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끝내 이루지도 못한 사랑이었다.

'소화의 집' 바로 건너편은 '현 부자네'다. 소설에서 '현 부자네' 건물은 이렇게 묘사된다. '그 자리는 더 이를 데 없는 명당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풍수를 전혀 모르는 눈으로 보더라도 그 땅은 참으로 희한하게 생긴 터였다.' 그리고 '반원을 이루고 있는 대숲이 작고 낮

아픈 역사 속에서 상처로 남은 사람들 소설 <태백산맥> 보성 별교

<태백산맥>을 읽는 내내 몇 번이고 눈을 돌려 쓸쓸하게 내리는 눈발을 바라보았다.
'정하섭'과 '소화', '염상진'과 '염상구'에게 빠져들었다.
그토록 모진 삶을 살았던 그들을 만나러 길을 나섰다.

01 소설에서 '현 부자네'는 봄이 오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곳으로 묘사된다.

02 '현 부자네' 대문 밖 우측에 자리한 '소화의 집'. 소화는 무당 월녀의 딸이다.

은 한 채의 기와집을 보듬듯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현 부자'는 읍내에 하나뿐인 남도여관의 주인이기도 하다. 소설에서 '현 부자네'로 묘사된 이 집은 실제 박씨 문중의 소유였으며, 전통 한옥으로만 보기에는 낯선 모습들이 곳곳에 보인다. 한옥에 일본 양식이 조금씩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발길을 '김범우의 집'으로 옮겼다. 이곳은 본래 별교의 대지주 김씨 집안의 가옥이었으나 소설에서는 '김범우'의 아버지이자 대지주인 '김사옹'의 집으로 묘사된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매우 낡았고 담마저 모두 유실되어 매우 위태로운 모양새였다. 오래도록 방치된 상태였지만, 마당에는 낙엽 하나 떨어져 있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건물은 낡았어도 꾸준히 관리되고 있는 곳이었다. '김범우의 집'은 <태백산맥> 작가 조정래 선생이 초등학교 때 이 집의 막내아들과 친구여서 자주 놀러 왔던 집이기도 하다.

엇갈린 형제애, 염상진과 염상구

해방 무렵 별교에는 세 개의 다리가 있었다. 홍교, 부용교, 철교다. 홍교는 조선시대에 지은 다리로 별교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이며, 부용교는 일제강점기에 지은 다리로 본래의 이름보다 '소화다리'로 더 많이 불린다. 철교는 소설의 배경 시절은 물론이고 현재도 경전선의 무궁화호가 지난다. <태백산맥>에서도 이 세 개의 다리는 자주 등장한다.

'김범우는 홍교 앞에 이르러 발길을 멈추었다.' '소화다리 아래 갈숲

에 내던진 듯 널브러져 있는 시체를 보았을 뿐이다.' '안창민이 철교 아래 갈숲에 다다랐을 때는 총성이 완전히 멎고 읍내는 어둠만큼 농도 짙은 정적에 묻혀 있었다.' 모두 소설 속에 등장하는 문장들이다. 특히 철교는 염상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된다. 철교 아래 선창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일본 선원을 찔러 죽이고 도망쳤던 염상구는 해방이 된 후 '용감하게 일본놈을 처치한 독립투사'로 변신해 읍내로 돌아왔다. 염상구는 '염상진'의 동생이다. 형은 좌익, 동생은 우익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다. 소설에서는 거칠고 다혈질인 염상구보다 지식인인 냉철한 염상진이 조금 더 돋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작가 조정래는 <태백산맥>의 주인공을 염상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선창과 창고가 있었다는 철교 아래로 가보았다. 선창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라는 추측은 빗나가고 의외로 소형 선박 몇 대가 정박해 있었다. 그곳에서 선박에 등유를 채우는 육십 중반의 남자를 만났다.

"장도에서 사람 실코 지금도 매일 두 대씩 배가 드와요. 물때에 따라 매일 다르제. 원래는 요것이 아니고 찌가였어. 옛날에는 큰 배가 없었응게 큰 배는 안 오고, 어선하고 섬에서 사람 실코 오고 그랬제." 그가 어릴 때만 해도 주변은 초가였고 선창 앞에는 술집이 많았다고 했다. 별교천을 넘는 다리가 몇 개 없었기에 철교 주변 사람들은 철교를 걸어서 넘어 다녔다고도 했다.



01 홍교는 1729년에 지어진 다리다. <태백산맥>이 아니어도 별교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02 아래의 다리가 철교이며, 철교 너머 우측이 선창과 창고가 있던 자리다.

염상진은 주먹을 부르짖며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눈을 번쩍 뜨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그 쓰라린 좌절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 수가 없었다. 2·7구국투쟁, 단선저지투쟁, 4·3투쟁, 여순투쟁으로 이어지는 아픔과 괴로움은 건디기 어려운 분노고 회한이었다.

<태백산맥> 2권 '냉철한 비판을 생리로 가진 역사의 정체는 무엇인가' 중에서

염상진은 그런 사람이었다. 남로당의 간부로 후에 빨치산이 되어 습격과 퇴각을 반복하지만, 끝내 토벌대와의 전투에서 열세에 몰리자 동료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자아 동무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씩 하시오."
염상진이 수류탄을 손아귀에 잡으며 말했다.
"머시냐, 바라든 대로 살아봤응게 원도 한도 읊구만이라."
"나도 더 바랄 것이야 없는데, 새끼 하나 있는 것이 눈에 붉히요."
(중략)

"동무들, 나도 동무들 같은 당당한 전사들과 함께 죽으니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소. 그저 영광스러울 뿐이요."

염상진이 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고 있었다.

<태백산맥> 10권 '휴전선으로 변한 삼팔선' 중에서

염상진이 팔을 벌렸고 모두 어깨동무를 했다. 그리고 염상진은 입으로 수류탄의 핀을 뽑는다. 소설을 읽으며 어쩌면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었을지도 모른다. 스스로 선택한 투쟁과 스스로 선택한 죽음 앞에서 그들의 마지막 대화들은 비장하고 슬펐다. 이를 뒤, 토벌대는 염상진의 목을 별교역 앞마당에 내걸었다. 그러고는 '악질

빨갱이 염상진 사살'이라고 써놓았다.

염상진의 머리를 거둔 것은 '청년단장' 염상구였다. "야 이 씨부랄 놈덜야, 여러 개소리 씌어 돌리지 말고 싸게 저것 떠내려!" 그리고 이를 뒤 염상진의 상여가 나간다. '골 간 데 없이 펼쳐진 어둠 속에 적막은 깊고, 무수한 별들의 반짝거리는 소리인 듯 바람 소리가 멀리 스쳐 흐르고 있었다. 그림자들은 무덤가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광막한 어둠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다.' <태백산맥>은 그렇게 끝이 난다. 그토록 긴 소설은 이토록 쓸쓸했다.

대하소설 <태백산맥>

1983년 9월 월간 <현대문학>에 연재하며 시작해 1989년 완간했다. 총 4부 10권으로 되어 있으며, 시대적 배경은 1948년부터 1953년까지다. 실제 사건과 가상의 인물들을 통해서 분단의 원인과 형성 과정을 추적한다. 등장인물만 250명이 넘는다.

소설가 조정래(1943~)

전남 승주군 선암사에서 대처승의 아들로 태어났다. 후에 한숙해 학교 교사로 재직한 아버지를 따라서 어린 시절 몇 년을 별교에서 지냈다. <태백산맥> 외에도 대하소설 <아리랑>, <한강>과 단편집 <어떤 전설>, <20년을 비가 내리는 땅> 등과 장편 <대장경>, <불놀이> 등 많은 작품을 썼다. 현대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단재문학상, 노신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여행 작가 박동식
카메라를 들고 길을 떠나는 유목여행자이며, 글과 사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길 원하는 작가이다. <오늘부터 여행작가>, <Just go 대한민국>, <내 삶에 비겁하지 않기>, <여행자의 편지>, <열병>, <마지막 여행> 등의 저서가 있다.

트윈세대를 위한 꿈의 공간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01



03



02



04

01 한지로 제작된 전등과 넉넉하게 채광이 확보된 공간이 온화한 조화를 이룬 1층.
02 화사하고 여유로운 공간, 창문마다 비밀의 공간을 마련해 아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어린이자료실.

03 2층 종합자료실은 이용자 중심의 서재 배치와 기품 있는 우아한 가구 배치가 눈길을 끈다.
04 트윈세대를 위한 독립공간 우주로 1216의 꿈공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색의 공간이다.



01 국내 최초로 12~16세를 위해 조성된 우주로1216. 쿵쿵존에서는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고 콘텐츠를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다.

02 쿵쿵존에는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어 공연을 하거나 콘텐츠를 감상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03 2층 종합자료실에서 만날 수 있는 한옥을 모티브로 한 아늑한 독서 공간. 조용한 독서를 원하는 이들에게 인가다.

도시의 새 지평 여는 특성화 도서관 개발

전주는 책의 도시다. 현재 운영 중인 12개의 시립도서관, 130개의 공·사립작은도서관이라는 수치화된 결과 때문만은 아니다. 읽는다는 행위를 넘어 시민이 책을 통해 꿈을 키우고 문화를 누리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이 전주가 확립해나가고 있는 도서관의 철학이다.

지난 2019년 12월 개관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그런 전주의 철학을 집대성한 공간이라 불려도 좋을 것이다. 꽃심이란 어여쁜 단어에 담긴 정신의 요체를 이해하고 나면 전주의 특별한 책 사랑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도서관의 진화라는 생태계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의 의지와 더불어 사서의 열정이 더해졌기에 가능했다.

“전주시 도서관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특성화 도서관 개발과 운영에 있습니다. ‘야호 책 놀이터 사업’을 통해 기존의 낡고 폐쇄적인 도서관을 각각의 특성화 주제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죠.”

박남미 관장의 설명처럼 일방적인 제공에 그치지 않고 상호 소통에 기반한 도서관 사업은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졌다. 여행자, 생태, 시(詩), 예술, 특색 있는 주제의 도서관 운영은 모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고 그들의 바람을 수용한 결과다.

책의 도시, 트윈세대에 주목하다

완산구 백제대로 화산체육관 맞은편에 위치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완성됐다. 꽃심이라는 이름은 대동·풍류·울곧음·창신을 받드는 전주 정신과 맞닿아 있다. 설계부터 공간의 조성, 내부 마감에 이르기까지 열의와 국내외를 넘나들며 발품을 아끼지 않은 실무자들의 노력이 지문처럼 남아 있다. 2018년 도교 츠타야 서점과 규슈 다케오 도서관을 방문해 공간의 활용과 미적 가치의 공존을 배웠고, 김승수 전주시장도 함께 일정을 소화하며 전주만의 차별화된 도서관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힘을 보탰다.

또 2019년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북유럽 4개국의 주요 도서관을 방문해 지역의 특색과 이용자의 성향을 반영한 공간 구성, 디자인 등을 조사했다. 특히 노르웨이의 비블로티옌 도서관 탐방은 꽃심이 기획 단계부터 특성화 주제로 삼았던 12~16세 트윈세대 전용 공간의 구성과 운영 노하우를 엿볼 수 있었던 귀중한 배움의 기회였다. 박남미 관장에게 트윈세대의 의미와 꽃심이 그들에게 주목한 이유를 물었다. “‘between’ 단어에서 나온 트윈세대는 어린이도, 청소년도 아닌 그 사이에 낀 세대를 의미합니다. 자기 생각을 야무지게 말할 수 있고 몸도 쑥쑥 자랐지만,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 어정쩡하게 낀 세대죠. 이 아이들을 위한 제3의 공간을 도서관에 마련해 더 자유롭고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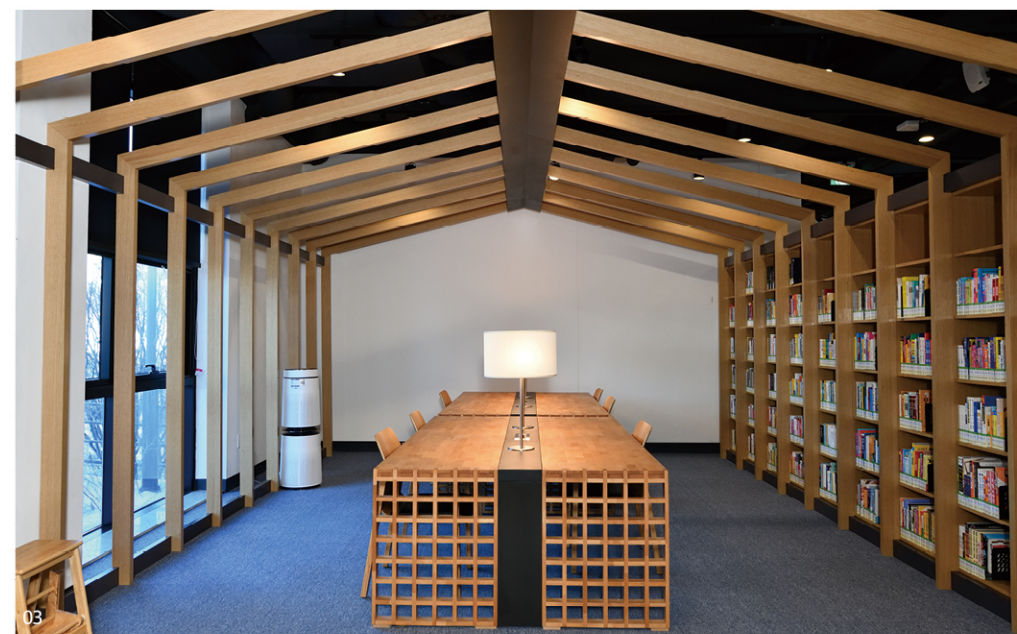
사서의 노력이 일궈낸 꽃심의 성공

한지 조명이 연등처럼 빛을 품고 있는 1층 천장은 전주가 천 년을 이어온 한지의 고장임을 일깨워준다. 안내 데스크와 어린이자료실, 장애인 채용 카페 ‘I Got Everything’이 입점해 있는 1층을 지나면 독서 계단을 통해 2층 종합자료실로 연결된다. 1층과 2층 사이 벽면 서재에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3·1운동 컬렉션’ 색션을 별도로 마련해놓았다.

꽃심에는 창이 많다. 모든 공간마다 창을 통해 도시와 숲, 세상과 연결된다. 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세계관은 과거의 폐쇄적인 도서관과의 거리 두기에 나서는 한편, 드넓은 창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이 아무리 바쁜 마음도 순하고 느긋해지도록 이끈다.

2층 종합자료실의 서재는 관리자가 아닌 철저히 이용자 중심으로 배치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사서 또한 한 사람의 이용자라는 유연한 시각이 낳은 결과다. “꽃심에서는 획일적인 도서관의 자료 배치 기준을 따르지 않아요. 이용자의 선호도와 대출 실적 등을 고려해 더욱 쉽고 빠르게 원하는 도서를 찾을 수 있도록 꾸며놨죠.”

벽면을 따라 테두리처럼 배치한 열람 시설, 숲길처럼 꾸며놓은 책의 미로, 6~7단 높이의 원목 서재, 기능과 품격을 모두 갖춘 북유럽 풍의 가구마다 사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그리고 이런 사서의 땀과 시간과 노력은 3층에 마련된 트윈세대 전용 공간 ‘우주로 1216’에서 절정을 이룬다.



‘우주로1216’에 담긴 도서관의 미래

우주로1216이라는 이름은 집과 학교와 세상으로부터 독립된 우주정거장 같은 공간이 되기를 희망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759㎡의 면적을 통째로 사용하는 우주로1216은 각각의 성격에 맞게 ‘톡톡, 쿵쿵, 스늬, 곰곰’ 4개의 존으로 나뉜다.

“우주로1216에서 아이들은 이 공간의 이용자이면서 운영자이기도 해요. 저마다의 다양한 취향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확장해나가는 즐거움을 배우죠.”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토크존, 활발한 신체 활동이 가능한 쿵쿵존, 공예부터 음악, 영상까지 무엇이든 만들어볼 수 있는 창작 공간 스늬존, 독서와 사색으로 나를 발견하는 곰곰존은 각각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4개의 공간이 트윈세대의 영감과 자극을 촉진했음은 물론이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쓰고 싶은 걸 쓰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동안 꿈과 희망이 죽순처럼 자라는 풍경은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신선하고 뿌듯한 경험이다.

우주가 신비로운 것은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미지로 가득 찬 우주처럼 신비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 트윈세대에 주목한 꽃심의 모험은 도서관의 새로운 시작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유튜브 '꽃심' 도서관 소개 영상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토~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06(문의 063-230-1840)

사라져버린 여성 작가를 찾아서 런던 페르세포네 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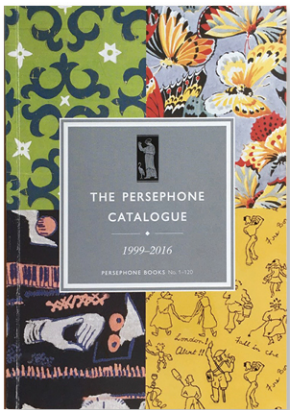
내가 런던에 간 이유는 런던 도서전 때문이었다. 런던 도서전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 도서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과 함께 유럽의 양대 도서전으로 꼽힌다. 그런데 기대가 너무 큰 까닭이었을까.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았고 출판사마다 준비한 이벤트 행사도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다. 조금은 실망했지만, 인생이 늘 그렇듯 어쩌면 그것이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었는지도 모른다. 도서전에 대한 실망은 런던의 특별한 서점들로 나를 이끌었다.



01 런던 블롬즈버리에 자리한 페르세포네 서점. 02 두 명의 직원이 서점을 지키고 있다.



03 무명의 여성 디자이너의 패턴으로 장식한 원피스와 스탠드가 전시돼 있다. 04 페르세포네만의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영국의 여성 무명작가들의 책.



01

원피스가 걸려 있는 서점, 페르세포네

내가 런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한 지인이 페르세포네 서점(Persephone Books)에 가볼 것을 추천했다. 서점명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 이름과 같아 여성과 관련된 서점일 것이라 생각했다. 서점 주소를 찾아보니 버지니아 울프와 관련된 동네였다. 당시 나는 버지니아 울프의 책을 준비하는 중이었고, 블룸즈버리 그룹(20세기 전반 영국의 작가, 지식인, 철학자, 예술가 집단)이 활동한 지역에 서점이 있다는 점도 흥미를 끌었다. 숙소에서 출발해 물어 물어 도착한 페르세포네 서점은 겉으로 보기엔 영 서점 같지가 않았다. 보통의 서점들과 달리 쇼윈도에 책이 장식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추상적인 무늬의 원피스가 걸려 있었다. 조심스레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손님을 반기는 인사도 없고 좌우 끝에 두 여성은 무심히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다. 가운데 테이블에는 꽃병이 있고 벽에는 그림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이 언뜻 보기엔 어느 집의 작은 응접실 같은 분위기다. 천천히 시선을 왼쪽으로 돌리니 그제야 책장이 보인다. 작은 네모 상자들로 만들어진 책장 안에는 책인지, 파일인지 구분이 모호한 것들이 층층이 쌓여 있다. 한 칸 한 칸 작은 메모지들이 붙어 있는 책을 보니 판형과 회색 표지의 디자인, 그리고 제목 폰트가 모두 일정하게 똑같았다.

20세기 무명의 여성 작가와 여성 디자이너가 다시 태어나다

책장에 누워 있는 책 한 권을 꺼내 보았다.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Frances Hodgson Burnett, 1849~1924) 작가의 책이었는데, 작가 이름이 처음엔 조금 낯설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소공자>를 쓴 작가인데, 책 제목 <The Shuttle>이 생소했다. 한국에 이 여성의 작품이 <소공자> 말고 또 알려진 게 있더라 생각하며 책에 짧게 적어 붙여놓은 메모를 보았다. '영국 귀족들과 결혼하는 미국의 상속녀들 이야기. 당시 미국의 에너지, 역동성, 풍요가 영국 지배 계급

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적혀 있었다.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하던 차 나 한 점원이 내게 다가와 어떤 책을 찾느냐고 말을 걸어왔다. 나는 머뭇거리다가 가장 궁금했던 쇼윈도의 원피스에 대해 물었고, 페르세포네 서점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페르세포네 서점은 20세기 전후반 영국에서 활동한 여성 작가들의 잊힌 소설과 논픽션을 책으로 다시 편집해 출판,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면 델라필드(E.M. Delafield), 다이애나 애실(Diana Athill),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Frances Hodgson Burnett)과 같은 여성 작가들이다. 한국 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버지니아 울프도 있다. 당시 섬유 산업의 강국이었던 영국은 섬유 디자인도 함께 발전했는데, 대부분이 여성 디자이너였지만, 그 이름이 남아 있지는 않다. 여성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다. 페르세포네 서점 쇼윈도에 걸린 원피스는 20세기 무명의 여성 디자이너가 만든 디자인 패턴의 작품이었고, 이 서점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출판하는 모든 책의 안쪽 커버에는 무명 여성 디자이너들이 만든 패턴이 들어가 있다. 그들의 이름까지는 모두 찾지 못했지만, 그들의 작품이 재탄생하는 것이다.

이 많은 여성 무명작가를 어디서, 어떻게 발굴해내는 것일까? 입소문과 자료에 기록된 잊힌 원고, 그리고 부지런한 연구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책을 발견한다고 한다. 독자에게 읽히지 못한 숨은 보석들을 찾아내 그들의 정당한 자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페르세포네 서점이 하고 있는 것이다. 책이 과연 많이 팔릴지, 서점의 유지가 가능할지도 궁금했는데, 이곳에서 재발견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Miss Pettigrew Lives for a Day(미스 페티그루의 어느 특별한 하루)>의 경우는 70년 만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며,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페르세포네 서점에서 구입한 책들을 한 권 한 권 검토하며, 서점 카탈로그에 소개된 다른 책들도 살펴봤다. 그중 <The Carlyles at

Home>이 눈에 띄었다. 칼라일은 한국인에게는 조금 생소하지만, 영국인에게는 매우 역사적인 인물로 꼽힌다.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 1795~1881)은 1800년대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철학자, 비평가로, 가난한 사람들의 처우 및 노동 환경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썼다. 때문에 그와 생각을 같이했던 수많은 젊은 예술가가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윌리엄 모리스, 찰스 디킨스, 오스카 와일드 등이다.

그가 살았던 런던 첼시에 위치한 칼라일 하우스는 버지니아 울프의 단골 산책로이기도 하다. <런던을 걷는 게 좋아, 버지니아 울프는 말했다>를 보면 칼라일 하우스를 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01 페르세포네 책을 소개하는 카탈로그

02, 03 런던의 아름다운 서점으로 꼽힌 던트북스. 한국과 북한 서적 코너가 있다. ©Wikimedia Commons

04 해처드는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으로 영국 왕실에도 책을 납품하고 있다. ©Wikimedia Commons



체인으로 5번지는 거주지라기보다 전쟁터, 노동과 수고와 끝나지 않는 싸움의 현장이다. 품위와 호사는 전쟁에서 인생이 획득한 전리품이다. 그 전리품 몇 가지가 살아남아 그래도 전쟁을 치를 만한 값어치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응접실과 서재의 유물은 다른 전장에서 발견한 유물과 비슷하다. 구식 철 펜촉 한 통, 깨진 사기 파이프,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펜대, 군데군데 이가 빠진 흰빛 금빛의 자기 컵 몇 개, 말총 소파 그리고 누런 함석 욕조. 이 집에서 일한 여위고 고단한 손과 생명이 다해 이 자리에 시신으로 누운 칼라일의 고통에 짓밟힌 얼굴 주조물도 있다. 집 뒤편 정원조차 휴식과 여가의 장소라기보다 개의 시신이 묻힌 묘비가 말해주듯 좀 더 작은 전쟁터에 가까워 보인다. 물론 펄프질과 술질로 얻어낸 승리의 낮과 눈부시고 평온한 밤도 있었다.

<런던을 걷는 게 좋아, 버지니아 울프는 말했다> '위인들의 집' 중에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에 등장하는 런던 서점들

런던에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서점이 많다. 그중에서도 던트북스(Daunt Books)와 해처드(Hatchards)는 한국 독자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런던에서 구입할 책 몇 권을 적은 메모를 들고 던트북스 서점 직원에게 물었더니 찬찬히 한 권 한 권 모두 찾아주었다. 서점 직원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북한 코너가 따로 있기도 했다.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은 해처드다. 1797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니, 그 역사가 200년이 넘었다. 특히 해처드 직원이 소개하는 해처드 컬렉션은 후회하지 않는 독서로 이끌어주는 지침으로 유명하다.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던 버지니아 울프의 책도 이곳에서 구했다. 역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델러웨이 부인> 주인공이 런던 시내를 산책하던 중 걸음을 멈출 만한 곳이다. 버지니아 울프도 산책

길에 항상 이곳에 들렀을 것이다. 울프는 소설을 구상할 때마다 런던을 산책하면서 그 이야기를 완성했다고 했으니 말이다. 나 역시 여행을 가면 어느 곳이든 그 지역의 서점들을 꼭 들른다. 서점에서 발견한 책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또 다른 책을 만들게 이끄는, 아이디어가 샘솟는 샘물과도 같다. 어쩌면 나는 서점을 가기 위해 여행하는지도 모르겠다. '책이며, 서점이며, 도서관이며, 영원하라!'라고 쓰인 깃발이라도 들고 싶다.

* 페르세포네는 서점 홈페이지(www.persephonebooks.co.uk)에 보유하고 있는 책과 작가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온라인으로도 서점 여행을 할 수 있다.

이정화
20년 동안 사보와 사사를 만들어왔으며, 지금은 출판사 정은문고 대표로 일하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며 여행지마다 서점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며 다음 책을 준비하는 즐거움으로 살고 있다.

국가지식정보의 보고(寶庫) 디지털 집현전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과 정보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고 지식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원격교육, 재택근무 확대 등에 따라 온라인 지식정보 및 양질의 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정보의 중요성을 미리 인식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과학기술, 교육학술, 역사, 문화, 예술 등 분야별 지식정보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교육 콘텐츠를 제작했으나, 분야별, 기관별로 분산하여 제공되고 있다. 한곳에서 검색과 활용이 가능한 통합 제공 채널의 부재로 국민은 각각 개별로 제공되고 있는 지식을 따로 접속해 찾아봐야 하는 등 지식정보 접근과 활용도가 떨어지고, 민간 포털을 포함한 민간기업도 국가의 지식 수집, 공유, 활용을 위해 개별로 수많은 지식 보유기관을 찾아 협약을 맺는 등 지식 활용 및 재창출 등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과거 집현전의 의미와 기능, 역할을 이어받아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의 디지털지식 역량을 제고하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지식정보의 통합 활용이 가능한 현대판 집현전인 '디지털 집현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현전은 조선전기예 학문 연구를 위해 궁중에서 설치한 기관으로 국가 인재와 학자의 양성, 도서의 수집과 이용, 학문 활동의 진작, 국왕의 자문에 대비하는 기능이 있었다. 집현전은 인재를 양성하고 문풍을 진작시키는 데 설치 목적이 있었으므로 국가적으로 많은 도서를 구입·보관하고, 활용하도록 하여 향후 조선의 주요한 제도적 정립과 문화적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기반으로서의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에 누구나 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식의 공유와 확산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디지털 집현전) 구축 추진을 발표했다. 분산되어 있는 도서관 DB, 교육 콘텐츠, 박물관·미술관 실감 콘텐츠 등을 연계하여 통합 검색·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디지털 집현전의 연계·통합 대상인 국가지식정보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등 분야별로 국가에서 생산, 관리 중인 객관성, 신뢰성이 검증된 정보로 지식정보와 교육 콘텐츠로 크게 나누고, 지식정보는 정부·공공기관, 도서관, 박물관에서 보존·활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논문, 정책자료, 동향, 보고서, 기록물, 역사·문화유산 정보 등이며, 교육 콘텐츠는 초·중·고,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교육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교육 강좌, 이미지, 음원 등 교육 보조자료 등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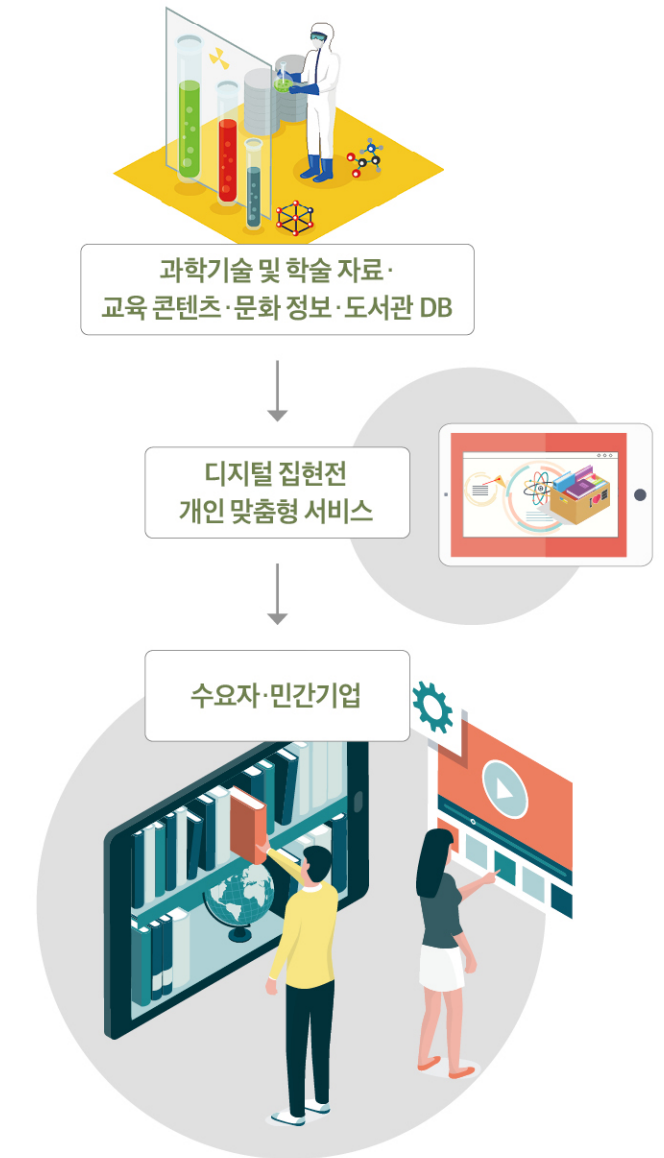
디지털 집현전은 국가지식정보의 확충, 연계, 통합 등 부처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교육, 문화, 행정 등 해당 부처가 참여한 분과별 작업반을 2020년 7월부터 구성하여 운영했으며, 수차례 논의와 협력을 통한 노력의 결과로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 집현전 추진계획을 지난해 12월에 완성했다.

공동작업반을 통해 디지털 집현전 사업범위·내용 구체화, 지식보유 현황 조사, 법제도 이슈 검토 등을 공동 진행했고, 디지털 집현전 추진을 통해 ①쉽게 국가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를 확충·통합하고 ②누구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개방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며 ③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위한 법적 기반 및 확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 목표로 설정했다.

디지털 집현전의 추진 목표 실현을 위해 25개 기관 4억4000만 건의 지식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추천 지식 및 부가서비스를 발굴·제공하며, 개별 사이트에 별도 로그인 없이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인증으로 국가지식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통합인증체계를 구축한다. 민간에서 국가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활용하고 지식의 재창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정보 연계 표준화와 모듈(API)을 제공하고 디지털 집현전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지식정보의 지속적 연계·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인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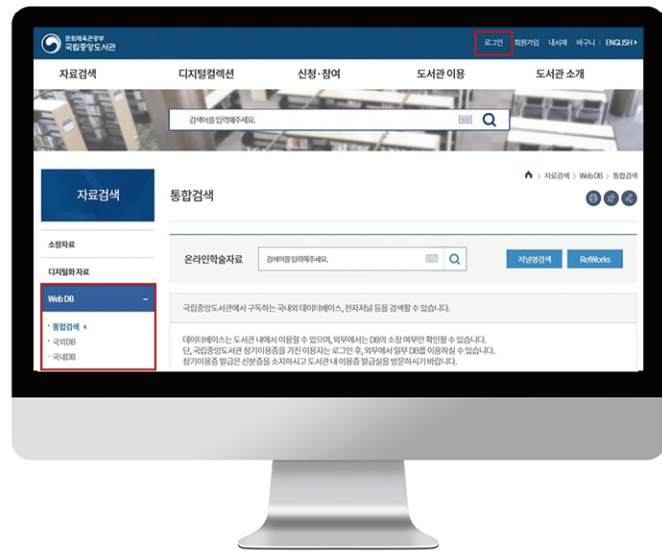
또한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의 우수한 지식정보 및 교육 콘텐츠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분야별, 기관별로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통합 제공하고 지식정보 대상 기관과 분야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며, 해외 우수 학술정보, 유명 교육 강좌 콘텐츠 등의 도입을 추진하여 우수 지식정보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도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소장자료 1000만 건(433만 책, 전체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의 48%)을, 국회도서관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690만 건(전체 국회도서관 자료의 62%)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디지털 집현전에 최종 연계하여 제공하게 된다.



디지털 집현전은 2021년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한 상세 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통합 플랫폼의 구축과 분야별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통합하고, 2024년부터 대국민 서비스가 오픈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공동작업반 및 개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의 모든 지식정보와 교육 콘텐츠가 총망라된 국가지식정보의 보고(寶庫)로서 디지털 집현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집현전을 통해 국민이 양질의 국가지식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비한 국민의 지식역량 향상과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국민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분야별 국가에서 생산 관리 중인 국가지식정보의 대국민 활용성 증대와 민간의 신규 융합 지식서비스 창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
로그인 → 자료 검색 →
Web DB에서 이용

집에서 이용 가능한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확대 제공

국립중앙도서관은 2021년 1월부터 전자책, 신문·잡지, 영상·음원 자료, 학술자료 등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전년 대비 42종에서 49종으로 확대 제공한다.

올해에는 국민의 온라인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공연 콘텐츠와 실용·취미 분야 대중서 등 다양한 분야의 웹 DB를 신규로 제공한다. 또한, 전 세계 유명 출판사 및 대학 출판부에서 발행된 양질의 학술 전자책 20만 권 이상을 집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누리미디어 DBpia, 세이지(Sage) 등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외부 이용이 가능했던 학술·전문 데이터베이스도 올 6월까지 도서관 외부 이용 기간이 연장된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국립중앙도서관 정기이용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도서관 누리집(www.nl.go.kr 로그인 → 자료 검색 → Web DB)에 접속하여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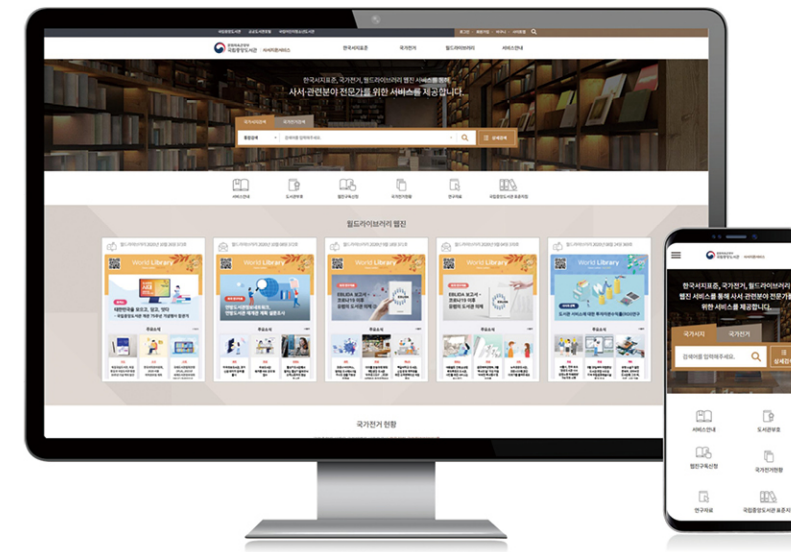
서혜란 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심신이 지친 국민들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지적 충만감과 따뜻한 위로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 웹 DB 관외 서비스

‘웹 DB’란 웹상에서 텍스트, 이미지, 음향, 동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검색하고 초록, 원문 등을 열람, 인쇄,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제공 현황 ①디비피아(DBpia), 제이스터(JSTOR) 등 학술DB 38종, ②MBC 영상아카이브, 모아진, 엡스코(EBSCO) 공공도서관 전자책 컬렉션 등 문화예술 콘텐츠 및 대중서 DB 11종

문의 디지털정보이용과 02-590-6307



사서와 도서관인을 위한 웹페이지 서비스 마련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지원서비스(librarian.nl.go.kr)’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는 ▲한국서지표준 ▲국가서지 ▲국가전자 ▲월드라이브러리 웹진 등 도서관 업무에 필요한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 이용자의 검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서지 표준 도구*부터 해외 도서관 소식까지 한곳에 모아서 제공

국립중앙도서관 통합플랫폼** 기반으로 설계된 사서지원서비스는 자료 정리 또는 서지 제어의 근간인 서지 표준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자료 검색 서비스와 도서관 소식을 번역하여 제공하는 월드라이브러리 웹진을 포함한다. 또한, 국가지식 정보자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활용을 위해 개인명, 단체명 외에 주제명을 포함한 국가전자데이터***도 이번 개편을 통해 새롭게 추가하여 서비스한다. 한편, ‘사서지원서비스’의 안정적인고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스템 운영환경을 클라우드 체계로 전격 전환했고, 이용자의 다양한 IT 접속 환경과 모바일을 지원하기 위해 반응형 웹방식을 채택하여 최적의 웹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메타데이터객체기술스키마(MODS), 더블링크어(DC)를 비롯하여 서지 기술을 위한 자료 유형별 목록 지침, 부호표 등

**2019년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한 콘텐츠와 기능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 공통 플랫폼

***표목으로 사용된 이름(개인명, 단체명)과 주제명 등의 형식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동종의 자료를 모으고, 이종의 자료를 식별하는 것

문의 정보시스템운영과 02-590-0566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4개의 개별 서비스 → 플랫폼 기반 1개의 통합 서비스
- PC 기반 서비스 → PC, 모바일 등 접속환경 반응형 서비스
- 개인명, 단체명 전자 검색 → 개인명, 단체명 + 주제명 전자 검색
- 온프레미스(On-premise) 운영 환경 → 클라우드(Cloud) 운영 환경



「도서관의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배포

국립중앙도서관은 감염병 유행 시 도서관 직원 및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도서관 기능 유지를 위해 「도서관의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번 매뉴얼 제작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내외 위기상황 시 다중이용 시설인 도서관이 항시 감염병의 위험성에 노출됨에 따라, 도서관 차원의 별도 감염병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의 도서관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동 매뉴얼에는 도서관 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방법과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유행 시 도서관의 준비사항 ▲도서관 제한운영 시 운영 방법 ▲도서관 내 감염환자 발생 시 처리 방법 ▲교육·행사·전시 등의 운영 ▲감염병 관련 각종 정부 지침 등이 수록되어 있다. 동 매뉴얼은 전국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 배포되며, 전국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도서관을 위한 참고서비스 > 국립중앙도서관의 대응'에도 내용을 공개한다.

문의 총무과 02-590-0525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 응대 업무 매뉴얼」발간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1월 11일 「도서관 이용자 응대 업무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이는 도서관 이용자를 일선에서 응대하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문제행동 이용자와 근로자 보호조치 ▲상황 및 사례별 응대 방법과 처리절차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사후조치 ▲근로자 불이익 금지 및 보호 등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본 매뉴얼은 도서관 자료실 이용이나 자료 복제 등 도서관 고유의 이용 환경을 반영하여 문제상황별 구체적인 응대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은 직원들이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업무 스트레스를 덜기 위한 다양한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매뉴얼은 전국 공공도서관에 배부되며,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도 공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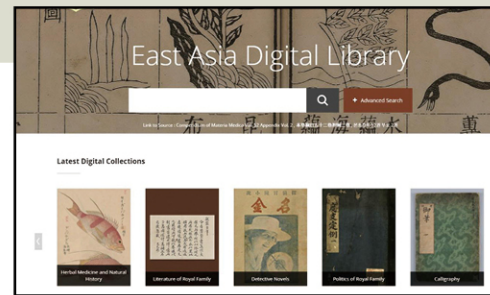
문의 디지털정보이용과 02-590-0568

코로나19 감염이 공공도서관 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표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해 12월 30일 '2020년 공공도서관 대출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전국 1180개 공공도서관 데이터를 수집·제공하는 '도서관 정보나루(data4library.kr)'의 대출 데이터 5823만 8593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2020년 공공도서관 대출 동

향을 살펴보면 2019년에 비해 약 4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같은 기간보다 대출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시기는 3월(89.0%)이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3월 이후의 대출량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공공도서관 휴관 및 일부 서비스의 제한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2020년 1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증가할 때 약 223.7권의 도서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1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명이 증가하면 14.9개의 도서관이 휴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의 디지털기획과 02-590-6230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 시범 서비스 개시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해 12월 17일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East Asia Digital Library, EADL)」 누리집(http://eadl.asia)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은 동아시아의 지식문화유산을 큐레이션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을 맡고 동아시아 관련 자료를 보유한 기관들이 참여하는 국제 협력형 디지털도서관이다. 이번에 시범 서비스로 공개되는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한 고문헌 총 8110종의 원문과 서지데이터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한국의 고려 및 조선시대 자료와 일본의 무로마치 및 에도시대 자료들이 포함된다. 특히 구조화된 데이터셋을 생성할 수 있는 연결형 데이터(Linked Data)로도 제공하여 활용성을 높였다.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 디지털컬렉션>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에서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중국어·일본어·영어로 안내를 제공한다.

문의 디지털기획과 02-590-6314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 협력 강화

국립중앙도서관과 사단법인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는 지난해 12월 고령층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높은 호응 속에 끝마쳤다. 국립중앙도서관과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는 지난해 도서관 이용자의 디지털 문해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문해력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3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쌍방향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디지털 도구로 직접 감사 일기를 제작하는 등 디지털 소양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시민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디지털정보이용과 02-590-6307

「2020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온라인 세미나」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해 12월 16일 '변화의 시대, 미래사회 기술과 트렌드 전망'을 주제로 2020 국가정책정보협의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유튜브(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를 통해 공개됐다.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김준규 팀장(KOTRA 시장정보팀)이 '2021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를 ▲이상훈 교수(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가 'VR의 미래 상상하면 볼 수 있다' 등 2명의 발표자가 앞으로 펼쳐질 미래사회 트렌드와 기술에 관해 이야기했다. 또한, 강의 우수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증정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회와 기술의 여러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도서관 역할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회원기관과의 다양한 협력 모델 발굴을 통한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와 정책정보자원 공동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디지털기획과 02-3483-884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 운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의 창의력 향상 및 도서관 이용 생활화 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에도 미꿈소에서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위드 코로나 시대 어린이·청소년의 미래역량 향상을 위하여 '2021 미꿈소, AI 시대를 만나다'를 주제로 ▲1~3월에는 '자기관리' ▲4~6월에는 '창의사고' ▲7~9월에는 '문제해결' ▲10~12월에는 '세계시민'에 대한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디지털 리더십 프로그램, 가족 프로그램 등 특별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한다. 개관 후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실감형 독서 체험 환경 제공을 위해 새롭게 조성한 증강현실 체험관을 만나볼 수 있다. 9월에는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미꿈소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년 미꿈소 창작 프로그램' 참여는 무료이며, 신청 및 세부 내용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www.nl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02-3413-481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청소년 릴레이 글쓰기 소설집 공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지난 1월 6일, '2020년 청소년 릴레이 글쓰기 소설집'인 《너 쓰고, 나 쓰고》를 누리집(www.nlcy.go.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너 쓰고, 나 쓰고》는 위드 코로나 시대, 맞춤형 온라인 재능나눔 봉사활동으로 진행한 청소년 릴레이 글쓰기 소설집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대학생 서포터즈와 청소년이 함께한 프로젝트이다. 학교 수업의 온라인 전환으로 어려워진 또래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청소년을 위해 기획됐다. 《너 쓰고, 나 쓰고》는 지난해 9월부터 10주간 2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20명의 글을 선정하여 구성한 소설집이다. SNS를 통해 주차별로 공유하고 이어 쓴 다채롭고 톡톡 튀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이번 소설집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청소년의 시각과 창작물 공유 활성화, 청소년 창작문화 진흥은 물론 글쓰기 습관화 기회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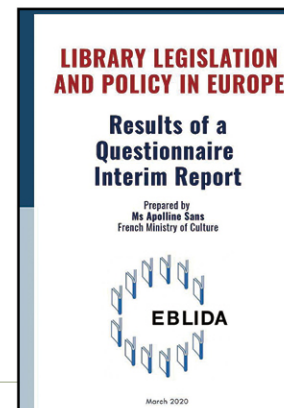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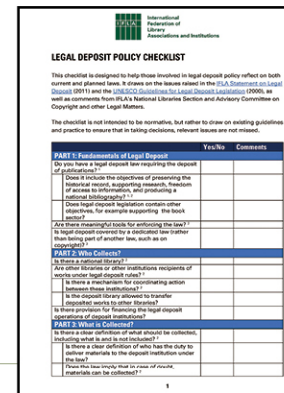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02-3413-4854



국립세종도서관, 기획초대전 <미소 한 아름> 개최

2월 28일까지 국립세종도서관 기획초대전 <미소 한 아름>을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세종도서관과 (사)한국미술협회세종지회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시민들의 피로감 해소를 위해 기획했다. 유쾌하고 생기 있는 조각과 회화 및 차분히 멈추어 생각하게 하는 캘리그래피 등 40여 점의 작품이 어우러진 전시 구성으로 관람객에게 웃음과 위로, 여유를 선사하고자 한다. 전시 관람은 '사전 방문 예약'을 통해 도서관에 입장한 후 가능하며, 직접 관람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전시실 영상과 작가의 작품 제작 모습을 도서관 유튜브에 게재했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도서관 누리집(sejong.n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 044-900-9134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일본 제도 관련 법률 체크리스트 공개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은 일본 관련 기존 법률을 분석하거나 새로 입법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본 제도 법률 체크리스트를 발표했다. 체크리스트의 목표는 주요 이슈나 질문 등이 도서관과 그 이용자를 위한 핵심 법률 제정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 관련 법률은 자료가 어떻게 일본 또는 수집되어야 하는지, 도서관이 추후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등 도서관과 정보를 발표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의무와 가능성에 대해 규정한다. IFLA는 새로운 일본 제도 관련 법률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존 법률을 분석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 도움이 되는 도구를 제공한다.

EBLIDA, 유럽의 도서관 관련법과 정책 중간보고서 발표

프랑스 문화부와 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이 보고서는 국립도서관 및 지역 도서관 수준에서의 요구와 문화 및 교육 정책을 제외한 정책과 관련된 도서관의 요구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EBLIDA 사무국은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2000년에 승인된 도서관법과 정책에 관한 유럽-EBLIDA 위원회 지침의 수정 계획에 착수했다. 이번 목표는 2019-2022 EBLIDA 전략 계획의 세부 목표 중 하나이다. 지우셉 비티엘로 EBLIDA 이사는 "현재의 도서관이 마주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제도 현대화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도서관이 해결해야 할 난제로는 2030 지속가능 개발 의제의 실행과 구글이나 아마존 등의 정보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경쟁자로 등장한 것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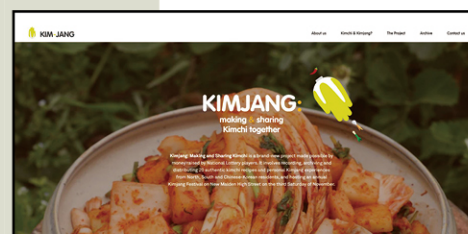
미국 저작권청, 공공기록물 저작권 시스템 시험 프로그램 출시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해 12월 15일 새로운 '공공기록물 저작권 시스템(CPRS)'의 시험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등록, 기록, 기타 데이터를 포함한 저작권 기록물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이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증대를 위해 개발됐다. 광범위한 사용자 피드백을 사용하여 설계된 CPRS 포털은 최신 이용자 경험, 향상된 검색 기능 및 개선된 모바일 지원을 제공하여 저작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누구나 publicrecords.copyright.gov의 CPRS의 시험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페이지 하단의 피드백 링크를 사용하여 사용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저작권 공공 카탈로그(CPC)' 서비스도 계속해서 제공된다. CPC서비스는 cocatalog.loc.gov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영국국립도서관, 웹아카이브에 한국 김치와 김장 문화 공식 등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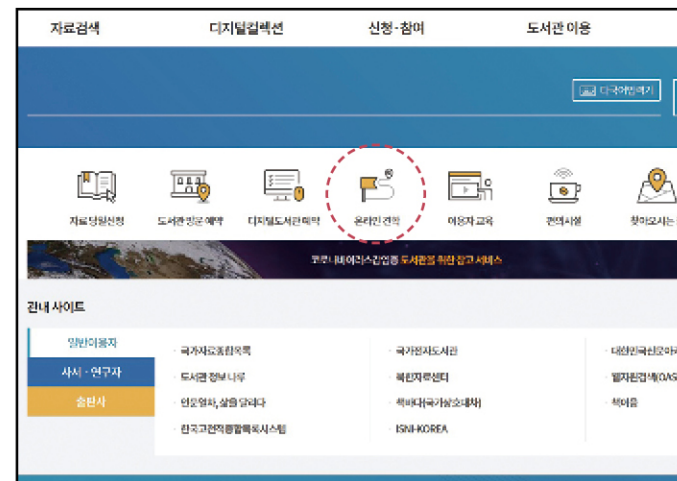
세계김치연구소 문화융합연구단 이창현 박사 연구팀이 유럽 내 김치와 김장문화 확산을 위해 개설한 웹사이트 '김장 프로젝트'가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 BL)의 '웹 아카이브(UKWA)'에 공식 등재됐다. UKWA는 BL의 전문 큐레이터와 기록연구사들이 중심이 되어 영국의 문화유산을 대표하거나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보유한 웹사이트를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다. '김장 프로젝트'는 웹 아카이브의 총 107개 주제 가운데 '식품 역사(Food History)' 분야에 등재되어 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이에 대해 "김치와 김장 문화를 단순히 이민자만의 문화로 보지 않고 영국에서 보존해야 할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 국외 도서관 소식은 월드라이브러리(http://librarian.nl.go.kr)에서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VR로 펼쳐지는 도서관 견학 온라인 견학 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서관 현장 견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서관에 직접 방문한 듯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견학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하 VR) 서비스'의 이용 방법을 소개한다.



온라인 견학 입장하기

'온라인 견학 VR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실사 3D 카메라로 촬영하여 Web-VR 기반의 가상공간을 구축한 것으로, 도서관 곳곳을 직접 둘러보는 듯한 생생한 화면을 제공한다. VR 견학 서비스는 도서관 누리집(www.nl.go.kr)을 방문하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 '온라인 견학'을 클릭 후, 견학 페이지 오른쪽의 'VR 보기'를 선택하면 VR 화면으로 도서관 곳곳을 살펴볼 수 있다. VR 견학은 도서관 본관 문학자료실, 연구정보실·연속간행물실, 도서자료실, 고문헌실과 디지털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미디어 창작실, 기록매체박물관으로 구성돼 있다.

VR 견학 서비스 둘러보기



재생

재생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이동하며 도서관 곳곳을 보여준다. 한 번 더 누르면 영상을 멈출 수 있다.

하이라이트

도서관 각 자료실의 공간 구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면 하단에 대표적인 장소들이 나열돼 있다. 각 장소를 선택하면 해당 장소로 화면이 이동한다.

인형의 집

실내 공간을 압축해놓은 미니언처처럼 공간 구조를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도움말

각 공간에 표시된 붉은 점을 클릭하면 해당 장소나 시설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다. 파란 점을 클릭하면 해당 장소를 소개하는 영상을 볼 수 있다.

측정 모드

마우스를 클릭해 화면에 점을 찍어 공간의 넓이, 면적, 간격 등을 측정할 수 있다.

평면도

각 자료실의 전체 공간 구조를 평면도로 한눈에 볼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온라인 견학 V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